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金鶴香油

## 社說

### 米國의極東政策

一

七日 유나이테드·프레스通信 報道에依하면 米國軍事當局은 比律賓獨立이 一九四六年以後로 延期될것을 豫想하고 目下 比律賓에 世界最强의 陸海空軍根據地를 建設할 計劃을 考慮中이라한다 그리고 空軍根據地建設에 對한 軍事專門家들의 意見으로 發表된바에 依하면 『比島空軍擴充은 時機에 適合한것으로 空軍이면 獨立實現後에도 容易히 米本國으로 撤收할수잇스며 一方海軍根據地는 新設備費가 만히들고 또 獨立이 實現되는境遇에 移動할수업다』는것이다.

以上意見은 經濟的으로 또는 便宜上으로 海軍根據地를 新設擴充하는것보다 空軍根據地를 建設하는것이 낫다는說明은 되지마는 米國에서 幾年後에 完全獨立을 許하여노흔 比律賓에 世界最强의 空軍根據地의 建設을 計劃하는 그理由說明은되지안는다.

二

지난三月十四日 比律賓高等辦務官인 맥너트氏가 『米國은 比律賓獨立을 無期延期하고 比律賓의 自治를 承認하되 그主權은 어데까지든지 放棄치안는다』하야 比島政界에 크다란 衝戰을 주어 퀘손大統領은 反對聲明까지 發한 일이 잇다 周知하는바와가티 比律賓은 一九三四年 三月에 米國上下院을 通過하야 루大統領의 署名까지 完了한 所謂 『타이딩스·맥더피』라는 法案에 依하야 十年이라는 準備期間을두고 比律賓의 完全獨立을 許한것이다。그리고 이法案은 比島議會에서도 可決하엿스므로 完全한 法律的效果를 發生하게되엿다。이와가티 比島獨立法案은 米比兩國議會通過에 비로소 成立된 法律이므로 比島의 贊成이 업시는 改定할수업는것임에 不拘하고 米國側에서 一方的으로 獨立無期延期를 云謂한다는것은 不愼한 態度임은 勿論이다。그러나 米國內에는 最近 比島獨立無期延期論者가 相當히 만흔모양인데 이번 比島에 强力한 空軍根據地를 建設한다는 報道는 獨立無期延期說과 서로關聯되는 뉴-스로 그 推移는 크게注目된다。

三

米國에서 比島獨立의 無期延期를主張하고 다시더나아가 比島에 世界最强의 空軍根據地를建設하려는 意圖는 最近의 極東情勢가 크게變하엿다는 點에 그 理由가 잇는듯하다。勿論 支那事變에依하야 極東情勢가 變하여진것은 事實이다。그러나 이情勢의 變遷은 米比關係에 何等影響을 波及하는것이 아닐뿐아니라。日本은 現在 支那事變에 直面하여잇고 事變이끗난後에라도 大陸建設의 使命을 다하여야할것이므로 隣邦諸國과는 이보다 더 親善할必要가잇스며 적어도 比島獨立法案成立當時에 比하야 比島獨立을 威脅할만한 아무 情勢도 發生치안흔것이 事實이다。한데도 不拘하고 最近米國의 比島에 對한 政策은 從來 嚴正히 聲明한바 不干涉政策을 放棄하고 極東問題에 對한 發言權을 强化하야 日支問題에까지 干與하려는것인 同時에 日支事變을 口實로 比島를永久히 屬領으로 만들려는 野心의 發露로밧게 推測할수업는데 이가튼政策은 米國의 傳統政策에 矛盾될뿐아니라 이것이야말로 極東平和를 威脅하는 政策이라고 附言하여둔다。

# 中支占領地內大工場 日支共同經營으로

## 陸海軍當局方針發表

【上海九日發同盟】中支占領地域의 復興上支那側工場操業을 促進하고자 陸海軍當局은 九日支那工場經營方針에 關한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陸海軍當局談 帝國陸海軍은 蔣政權의 徹底的膺懲에 邁進하는 同時에 他方占領地域內에서는 維新政府를 支援하야 極力産業復興과 難民救濟에 힘쓰고 休止中의 各種工場은 速히 그運轉을 開始시킴이 必要가 잇슴을 認定하고 支那側工場經營者의 必要에 應하야 重要한工場에 對하야는 日本側으로부터 技術上 經濟上의 援助를 하야 速히 企業復興을 期하려한다

本共同經營의 主旨는 蔣政權으로부터 離脫시키고 日本側事業家와의 提携를 促進시켜 共存共榮의 實을 어드려는것으로 秋毫도 이로써 財産沒收利益壟斷을 企圖하는바 아니다 日支共同經營인 境遇에는 適當한日本側業者를 嚴選한 後公平妥當한 經營許可條件을 부처 實施시키는것이다 그런데 支那側에서는 內心共同經營을 希望하고 잇스나 或은 財産沒收를두려워하고 或은 蔣政權의 壓迫을 두려워하야 이를忌避하는것이다 그리고 第三國으로서 이에틈타서 噓僞의名義變更 僞裝仲介로 不當한 利益을 貪하려는 者가잇서서 日支兩當事者間에 交涉을遲滯시키고잇슴은 實로 알수업는일이다 따라當局은 如斯한行爲에 拘碍치안코 同經營에應치안는 工場에對하여는 于先 日本側業者에게 그經營을 委任하야될수잇는대로 速히 操業을 開始시키기로되엿다

그리고 小規模工場으로서 當局이 그經營者의復歸를 承認하는者는 반드시共同經營이 아니라도될수잇는대로 速히單獨操業開始를 歡迎하는바이다

# 外國艦船待避要請 關係各國도諒解乎

【上海九日發同盟】及川艦隊長官의 第三國艦船撤退 第二次要請은 關係各國에서도 事情이不得已한것이라보고第一次要請同樣으로諒解하고잇는模樣이데 我方이特히 關係各國의 注意를喚起코저하는所以는 湖口、黃石港間의揚子江及 그江域과湖沼地帶가 이미 戰鬪地域으로되엿스며 特히 湖口、黃石港間에서 支那軍은現在 熱心으로 機雷敷設等을하고잇는模樣인때문이다 그리고 過去에 蕪湖、湖口間에서 連日激戰하고잇슬때 第三國艦船에 何等不愉快한 問題가 發生치안헛던것은 我方의 가장滿足히생각하는바이다 該區域에서 我艦艇이處分한것은 機雷만도 約○○個에達하는바 支那軍이敷設한것은 아마도○○個에及할것으로 아직도危險狀態에잇스며 濁流中을 浮流하고잇는것이 不少하다 그리고 江岸到處에서 水陸이 서로 呼應하야 殘敵을 掃蕩하기爲하야는 今後에도 戰鬪가 繼續될것으로 아직도 第三國艦船이右區域內를 航行할 時機에는 到達되여잇지안흔까닭에 이點을거듭第三國에 對하야 注意를 促한것이다

### 外國艦船尙今도航行

【上海九日發同盟】及川艦隊司令長官으로부터 九日第三國關係當局에發한 湖口、黃石港間八十浬間에서의 第三國艦船의自發的待避要望에關하여는 第三國이 不祥事件을 未然에防止하려는 我方의眞意를 理解하야 速히 適當한 處置를 講究할것으로 期待되는데 支那側情報에依하면 目下九江에는 英國及米國軍艦이二隻碇泊하여잇고 九江、漢口間에는 尙今도 商船의 航行이 繼續되는模樣으로 적어도 數隻의 外國商船이就航 又는 繫留되여잇다고보인다

## 海荒鷲、英德서 軍用장크百隻爆破

【上海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九日正午發表 昨八日中支에서 海軍航空隊는 武穴方面의 敵陣地及 集團部隊를 爆擊하야 이에 多大한損害를주엇다 敵飛行機는 數機式 四回에亘하여 來襲하엿스나 이것을追擊한 我追擊機는 敵二機를 擊墜하고艦上地上防禦砲火에 依하여 一機計三機를 擊墜하엿다 我方에 損害는업다 廣東方面에잇서서 海軍航空隊는 昨日粤漢鐵道를 英德方面에서 爆擊하야 線路四個所를 切斷하고 軍倉庫를 爆破하엿다 또 一隊는 英德附近에 蝟集한軍用 장크를爆擊하야 百隻을爆破하엿다

# 列國駐支大使館 重慶으로移轉決定

【上海八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漢口의 危機가 마츰내切迫되엿슴에 비치여英、米、佛、伯、獨、伊、蘇七個國의 駐支大使館은 漢口로부터 重慶으로 移轉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國民政府外交當局은 重慶市街에서 右各大使館建物을 選定하기에 奔忙되고잇다 그런데 市中에는支那避難民集中으로 家屋이매우不足되는때문에 適當한 建物發見에多大한 困難을 感하는模樣이다

## 陸海兩部隊長 湖口서感激한握手

【湖口九日發同盟】陸軍部隊의湖口占領과함께 海軍의 掃海作業은顯著히 進捗되야 九日午後二時 海軍陸戰隊中武部隊는 ○○便乘海軍으로의 第一着을하엿다 湖口岸壁에到着 陸軍石川部隊長과 中武部隊長은 感激한 握手를하엿다

## 安慶上空空中戰 敵搭乘員을捕虜

【安慶九日發同盟】八日午後七時頃安慶上空에서 저녁하늘을 돌코 展開된 ○·大空中戰에 잇서 我海의 荒鷲로因하야 擊墜된 敵카티스·호-크一機 搭乘員三名은 火焰을吐하는 自機를 내버리고 파라슈-트로 脫出하엿스나 그中一名은 安慶西北方四十里의地點에 降下한것을 同地守備隊佐野中隊의 勇士에게 逮捕되바 同人은 支那空軍第二大隊第三中隊中尉劉甫成(二二)으로 判明되엿는데 左大腿骨折、頭部顏面에 火傷을바더 目下應急治療를 加하는一方 取調하는中이다

### 捕虜된航空少尉 明快히訊問에應答

【安慶九日發同盟】八日夕我海荒鷲의 猛擊으로 安慶上空에서擊墜되자 파라슈-트로 降下하야 佐野部隊에게 捕捉된 敵파이롯트 劉甫成航空少尉는 九日○○部隊本部에서 江口○○部隊長과 陸戰隊長等의 訊問에 意外에도 서슴지안코 다음과가티 對答하엿다

余는 吉林省出身으로 廣東에서 一年파이롯트訓練을바더今年一月南昌의 空軍에 配屬되엿다 昨日은 馬頭鎭附近의日本軍艦을 爆擊코저 B重爆機九○三號를 操縱하야 百五十키로 爆彈을搭載五千米以上의高度를 날르며 空襲하려왓는데 地上砲火의猛烈로 投彈치못하고 數次나 安慶飛行場을 엿보앗스나 失敗歸還하려는듯에 日本○○機에 急追되여 엉겁결에 彈丸을 바더 파라슈-트로 降下하엿는데 그만捕捉되엿다 余等의 所屬隊는 支那人만으로서 外人部隊와 對面해볼생각이엇스나 蘇聯人을 中心으로 外人도 相當히 多數가잇는模樣이다 南昌에는 飛行機이 二個이엇스나 日

# 上聞에達한 海荒鷲隊에의感狀

【東京電話同盟】九日午後三時大本營海軍報道部公表

左記感狀은 上聞에達하엿다

感狀

松浦海軍大尉가指揮한 軍艦○○及○○水上偵察機隊

昭和十三年一月八日부터 一月十日에이르는동안 南寧及柳州의 敵航空基地에對하야 連續五回에亘한攻擊을 反復하고 激烈한空中戰闘로써 敵戰鬪機九機를 擊墜한外 敵飛行機를爆破하고 軍事施設에 多大한損害를준것은 武勳顯著하다 仍하야 이에感狀을授與함

昭和十三年四月二十日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長谷川淸

感狀

○○航空隊

昭和十三年二月十四日부터 十六日에이르는동안 月明을타서 漢口及 南昌敵空軍根據地에對하야 猛烈한照射와 彈幕과 根深한 敵戰鬪機의妨害를排除하면서 連續有效히敵에對하야 勇敢한攻擊을加하야 多數의敵飛行機、軍事諸施設을爆破하고 多大한損害를주어 爾後의作戰에 貢獻한바 極히甚大하야 그武勳이顯著하다 써이에感狀을授與함

昭和十三年四月二十七日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長谷川淸

## 퀘손比島大統領

【[illegible]同盟】[illegible]來朝한 比島大統領 마누엘·퀘손氏는九日午前十一時五十八分東京驛發列車로離京、同四時[illegible] 부터 [illegible]하엿다

## 安慶上空서 敵一機擊墜

【安慶八日發同盟】八日午後七時十分頃敵카티스·호-크六機가[illegible] 隊로써 無謀하게도 어두워가는 安慶上空에 襲來 二千五百米되는 距離에서 [illegible]하려하엿스나 [illegible]我地上 江上 [illegible]部隊의 [illegible] 對空射擊으로 一彈도投下치못하고 西方으로 遁走하엿다 이때江上空間에서 [illegible]하고잇든 [illegible] 一機는 [illegible] 하야 壯烈한 [illegible] 敵一機를 擊墜하엿다 [illegible] 五機는 [illegible]하야 遁走하엿다

# 李品仙稱病入院

## 淮南兵團總指揮官 獨斷的戰線離脫에蔣、激怒

【石家莊九日發同盟】確實한 側에서 들어온 情報를보면 漢口東北方地區의 重要正面防禦를擔當할 淮南兵團總指揮 李品仙은 徐州敗戰後 六安에서 指揮하고잇다가 蔣介石의 嚴命에依하야 再次 抗戰準備를 整頓하고잇던바 繼續되는 敗戰에 士氣가沮喪하야 皇軍과 一戰을交할 氣力이업서지자 드디여 稱病重態에 빠저 그職을 堪耐할수업다는 理由下에 八日夜 獨斷으로 漢口某病院에 入院하엿다 最高指揮官으로 이가튼行動을한것은 支那軍全般의 士氣가 沮喪된것을 遺憾업시 表示하는것으로 자못注目된다 그리고 李品仙의 戰線離脫에 對하야 蔣介石은 極度로 激怒하야 嚴重處分方法을 考慮中이라 한다

# 漢口防備는鞏固

## 香港서獨軍事顧問談

【香港九日發同盟】昨八日 香港에到着된 바우에르氏以下 獨逸軍事顧問團은 모두다 面會를謝絶하고 便船을 기다리고 잇스나 彼等이 外國人에對한 談話를綜合하면 大體와如左하다 獨人軍事顧問團은 아직도大人數가 殘留하나 彼等은 끗까지 國府의 軍事指導에 參加할 決意를 버리지안는 模樣이다 我等의 召還 理由는 不分明하나 武器 購入에 關하여 日獨間에 密約된것이 原因인듯하다 그라우트만 大使召還은 決定된것으로 觀測된다 新獨逸政府의 政策에 關하여 在留獨逸人間에는 相當不滿이잇다 漢口防備에 對하여서는 我等 獨逸人軍事顧問의 指導下에 長江一帶에 非常히鞏固한 敷設水雷의 網이 둘러잇서 그것을 突破하고 漢口에進出하려면적어도 四、五個月을 要할것이다 南京陷落直後長江防備의 貧弱한時에 漢口에 進擊치안한것은 日本軍의 一大錯誤라고생각한다 武漢方面의軍需工業은 非常히 完全한것이다 따라서 武漢防衛의 裝備는 相當完備되여잇스나 그러나 軍規는그리케 嚴重치안타 只今까지의例로보면 日本軍이 漢口附近에 肉薄하면 中央軍의精銳는 재빨리 退却하고 그後에는 雜軍과 若干의 殘餘될것이므로 漢口陷落은 比較的容易할것이다 去四月二十九日 日本의天長節에 敢行된 日本空軍의 空襲以來 漢口에서는 大規模의 空襲이 업스므로 民衆은 安心하고잇는模樣이다

### 白河鎭戰鬪에 關准尉等奮戰

【張水鎭九日發同盟】我○○部隊는 山西南部의 山岳戰이 展開되자 前線의 第一線部隊로서 參加하고잇섯는데 六日敵精銳를 자랑하는中央軍 第一師가必死的防禦에 努力하는 白河鎭戰鬪에서 [illegible]에 퍼부어오는 [illegible] 米를 勇敢히도 [illegible]하야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我武兵[illegible]을 맛들고 다시 고함하는 [illegible] 하야 關准尉와가 뛰여드러 敵을 [illegible] 하엿다

# 日獨伊三國間에

## 防共專任官交換駐在

【東京電話同盟】內務省警保局에서는 日獨伊三國防共協定의 締結을 契機로하야 歐亞를連結한 共同戰線 赤化方策防衛의 實行方針에 對하야 外務當局을 通하야 獨伊兩國政府와 折衝中이든바 日獨伊三國互相間에 防共專任官을 交換駐在하야 赤化防衛에當케하려고 警保局은 官制의 立案과 專任官의 銓考等急速準備中인데 今回거우 諸般의 準備를 完了하엿스므로 느저도 來週中에 官制公布와同時에 駐在官을 任命하기로되엿다 그래서初代의防共專任官으로는伊太利 羅馬防共公館에는 現警保局勤務 內務事務官 猪俣敬次郎、獨逸國防共公館에는 現 伯林駐在內務事務官 重成各의兩氏를專任官으로하기로 內定하야 猪俣氏는 오는八月三日東京發赴任할 豫定이다

## 朝鮮物産見本市 北京서兩日間開催

【北京九日發同盟】朝鮮各地의物産紹介를 目的으로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同協會副會長 並谷隆治氏를 派遣하야 十一、十二兩日 北京日本人俱樂部에서 朝鮮物産見本市를 열게되엿다 그리고 十四、十五兩日은 承德 그後는 錦州에서도 見本市를開催할豫定이다

## 그란차코問題 調停委員會에一任

【베노스아이레스八日發同盟】그란차코의 領有權을 圍繞한 볼리비아、파라과이兩國間의 國境紛爭은 볼리비아、파라과이兩國이 中立國側의 調停案을 拒絶한以來 再次惡化되여 一九三五年의休戰條約을破棄하고 斷然 武力行動을 取하려는氣勢가 濃厚하든바 中立國의調停을 根幹으로 進行되고잇든 和平交涉의結果로 마츰내兩國政府가모두 從來의 軋轢을버리고 國境紛爭의 解決을中立國의 調停委員會에 一任하기로決定 그旨를 八日正式으로 發表하엿다 兩國이 如此히妥協的態度를 取하게된것은 雙方의軍隊가 모두 戰意를喪失한것과 伯國、亞爾然丁、智利、秘露等의中立國이 側面으로부터 壓迫을加한結果로 觀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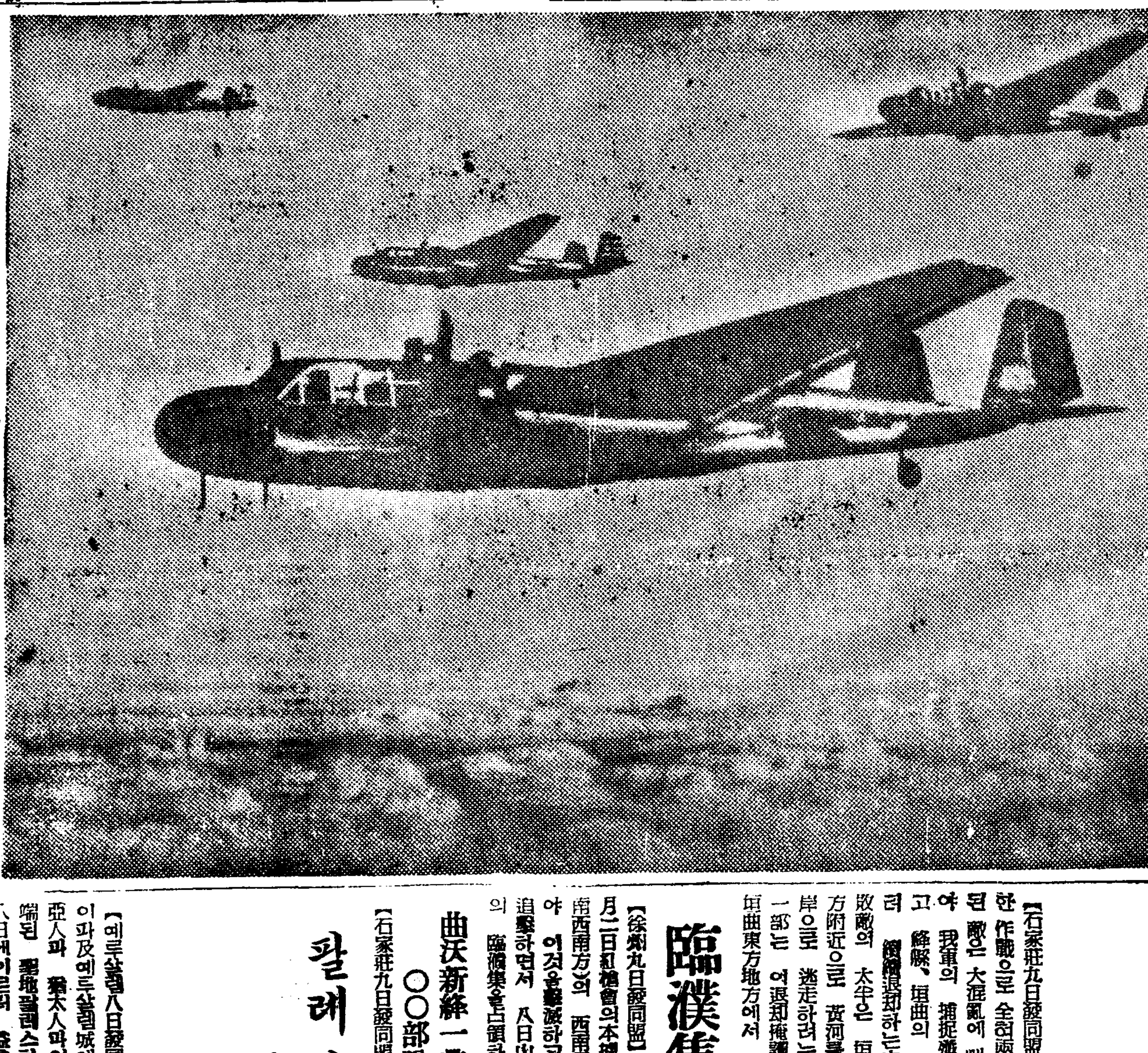
## 共黨員毛澤東等 參政會에對한意見書發表

【香港九日發同盟】國民參政會에出席한 共產黨員毛澤東外六名은 지난五日 意見書를 發表하엿다 各黨派民族統一戰線을 超越하야 我等은抗戰計畫의 具體的辦法을 處理치안흐면안된다 我等의希望하는 具體的辦法으로서는于先 政治機構를 改革하야 民衆의積極的 參戰機關을 組織化한다음 經濟上으로부터 戰時財政金融의向上 工業農業生産을 提唱하고 그다음에人民의生活方針을 改善치안흐면 안된다 又戰時動員 徵兵制度를 써서 我國軍隊로하여금 民族意識을充分히認識케하야 强力한軍隊를 養成하여야한다 그具體的方法으로서 富者는金錢을내여노라는 슬로강을내어건다

# 共黨에入黨要求?

## 蔣以下國民黨首腦部에

【北京九日發同盟】國民黨中央監察委員會는 毛澤東、周恩來의 中國國民黨復籍을決定한結果 共產黨指導者는 國共兩黨員을 兼하게되엿는데 支那側某方面의 情報를보면 今番에는 共產黨으로부터 國民黨에對하야 蔣介石以下 國民黨首腦部의 共產黨入黨을 要求하엿다고한다 共產黨의 이要求에 對한 蔣介石의 態度는 全然不明하나 共產黨에서는 萬一首腦部全部의 共產黨入黨이 不可能하면 蔣介石一人이 代表者로서 入黨하라고 主張하고 잇다고한다 國共合作에 어디까지 平等의 立場으로서의 聯合戰線이라는 立場을 主張하고잇는 現狀이므로 共產黨側의 이要求는 엇졸더한일일것이다



南昌爆擊에 勇躍한 我荒鷲隊

# 山西敵軍續續退却

## 絳縣、垣曲方面으로

【石家莊九日發同盟】我方의巧妙한 作戰으로 全部兩翼으로 包圍된 敵은 大混亂에 빠저 곳곳으로 退走하야 我軍의 捕捉殲滅을 避하려고 絳縣、垣曲의 兩方面으로부터 退却하는中이다 어틀 敗敵의 大半은 垣曲南方及西南方附近으로 黃河를 渡河하야南岸으로 逃走하려는것으로 敵의一部는 여긔退却掩護의 目的下에 垣曲東方地區에서 殺到하는○○部隊에 對하야 決死的抵抗을試하고잇스나 我○○部隊는 果敢한 行動으로써 그抵抗을 排除하고 益益有利하게 戰果를거두고잇다 一方山西飛行部隊도 이에 協力 渡河點으로 向하야 山間道路를退却하는 敵集團에對하야 猛烈爆擊을 試하고잇는데 敵은到處에 累累한 死體를 遺棄하고 오직退却할뿐이므로 我方은刻一刻敵에게殲滅的壓迫을加하고잇다

攻果敢한 進擊을 繼續하고잇다

## 黃河渡河點攻略 時間問題化

【石家莊九日發同盟】數日來垣曲東南地區의敵을 殲滅中이든 我○○部隊는 敵의退路를 遮斷코저 猛進中으로 垣曲附近黃河渡河點의攻略도이미時間問題化하엿다

## 臨濮集을占領

【徐州九日發同盟】○○部隊는今月二日紅槍會의本據인 東阿(濟南西南方)의 西南梁山을 攻擊하야 이것을擊滅하고 다시이것을 追擊하면서 八日山東省 西南端의 臨濮集을占領하엿다

## 曲沃新絳一帶의 ○○部隊進擊戰

【石家莊九日發同盟】曲沃新絳方一帶 山地의 敵은 我巧妙한 作戰으로 그後方을 包圍된데 狼狽하야 西方河津南方運城、夏縣東南方垣曲으로부터 山岳地帶에 逃走하야 潰亂狀態에 빠젓다 ○○部隊는 이에 乘勢하야 다시 猛擊中으로 百三九度의 炎熱과 싸우며小林、領木、十河、野谷部隊는 ○○方面에 滴水、萬城目、鬼武部隊○○는方面의 猛

## 六月中滿洲國對外貿易

【新京九日發同盟】六月中의滿洲國對外貿易額은 一億六千九十五萬八千圓인데 其中輸出은 五千四百十八萬九千圓 輸入은 一億一百七十八萬九千圓으로 五千二百六十一萬圓의 入超이다 이를前年同期에 比較하여보면 輸出은 三百五萬四千圓 輸入은 三千九十五萬三千圓이 各各增加되엿다

## 本社參觀

◀朝鮮漁業組合 中央會員二十五名 淸水實雄氏 引率下九日本社參觀

# 팔레스타인全土에 不穩한空氣漲溢

## 英陸戰隊警戒森嚴

【예루살렘八日發同盟】去六日하이파及예루살렘城에잇는 亞剌比亞人과 猶太人의 衝突에서發端된 聖地팔레스타인의 騷擾는 八日에이르러 益益重大化되여不穩한空氣는 팔레스타인全土에充滿되여잇다 總罷業으로 드러간 各地의 亞剌比亞人은 回敎寺院附近에集合하야 不穩한 形勢를 보이고잇서 各地의 交通機關은 全혀杜絶되엿다 예루살렘城은午後六時頃 戰時戒嚴令을 布告하고 市內 要所要所에는 銃劍을 가진 軍隊가 配置되여 잇는바 一方 事態가 急迫하여 하이파港으로急行한 英國巡洋艦에 탑재된 三號陸戰隊는 即時上陸하야 市內重要地點을 警備하고잇다

003425

アイエム チウインガム
⊕のガム
アマ黨も! カラ黨も!! 飲み黨も! 喫煙黨も!! 凡ての紳士よ! 淑女よ! 御身の爲にか! 彼女の爲にか!
アイエム チウインガムに依つて歯の清掃をなし明朗な人生になれ
發賣元 京城府鐘路一 京城公司
製造元 マルイマ製菓場
Maruima kokusan gamu

絶對安價ナ高級品大特賣
御一報次第代金引換にて即時御送附申上げます。機械は何れも最良完全萬一不備の時は取換へ又は返金を致します
十六型懷中時計 クローム側 一號 八圓五十錢 二號 十一圓 特號 十二圓
十九型 クローム側 腕時計 一號 七圓八十錢 二號 六圓九十錢 三號 五圓三十錢 特號 十圓
三味型皮付 12時

陸軍拂下 純毛ラシヤ製ゲートル
最上品 八圓八十錢 極上品 七圓五十錢 上品 六圓三十錢 各十足ニ付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區流川町 一手元賣 中京商會 電話中四三二一・三二六番

劍光メリヤス製造元
夏物オール大特賣!!
是非…御見落しなく 劍光へ!!
カタログ申込次第呈上
KENKO BRAND
劍光商會
名古屋市熱田區沢上町三〇・電話南七二九

特許石油下向ランプ 十六燭光 八分芯用
特許ガソリンランプ 卅二燭光 文化提灯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電話南2131 振替名古屋2131

海狗腎 補精強腎強壯劑
朝鮮釜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說明書請求 無料進呈

돈벌기大王 リート式穀物膨脹機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北區浮田町九番地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五合의쌀이八升가된다

中古モーター高價買入
遠近不問買賣及交換함
中村鉄工所販賣部 京城觀水町電光一五九四番

文房具・事務用品 豊富在庫 大都賣
東光堂文具卸部
卸目錄要三錢切手
京城府西四軒洞 電光三〇七 振替京城16121

高木貴金屬店 ダイヤモンド専門 京城本町一丁目 一九八番

少年 七月號 보셧습니까? 벌써 나왓습니다. 속히 註文하십시오 요금十錢

カゴメ ケチヤツプ

# 一條麻索이生命線 膽寒!一蹉一跌

## 赤面不己할時體登山黨의록·클라이밍

山이여 바다로 競涼特急 七

山班 第一站 毘盧峯 ③ 文 愼弦重 寫眞 姜大興

여기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축도(縮圖)라고할 만물상(萬物相)이다 천년버섯 석이를 따는 "홍첨지"와 그가최근에 더리고다니는 그의유일한제자 "송서방"파함께 석이따러가는뒤를 따라 온것이다 날은 흐렷스나 비는오지안엇다 안개와 구름이모혓다 퍼지고지혓다가는 살아져서 만가지 물형을 이루운 기이한봉오리들이 회색하늘속에서 드러낫다 살어젓다한다 이날 홍첨지와 송서방은 머리에는 수건을동이고 억개에는 굵은 밧줄을 한아름 감아질머지고 그우에바구미하나식을 억개에 걸첫다 홍첨지만은 이박게 큰포대기하나를 허리춤에 차고잇다 무러볼것도업시 바구미는 석이를 따너흘 그릇이요 포대기는 석이가만하 바구미로 모자랄때에 따로포대기에 차너흐려는것이다 석경(石徑)을 탄란대로 망창아 성큼성큼올라가다가 잠간거름을멈춘 홍첨지가 오른편하나바게업는 저눈으로만물상 천인절벽을 쏘는드시 한번 훑터본다 마치 새를채라는 매의눈파도가티 그안팡은 날카롭다 그는서슴지안코 한울기산길을 헤치고 만상계(萬相溪)기픈골을파고 내려간다 아마 그의양식이 저절벽우에보히는모양이다 우리는 그를따랏다 송서방과 홍첨지는 그저 풀바를헤치고 가드시 기픈골작이를 선듯선듯내려서지만 우리는 나무가지에매어달리며 바위돌을조심조심디디면서 간신히 기어내렷다 꼴미트로내려서니 먼저보던 만물상의 봉오리봉오리가 모다하늘에다은듯하야 천길인듯만길인듯어데서 차듯한 안개조차차옥히 몰려들어 소름이 끼치고 간담이 서늘하다 이날이때의측감은마치가을도 느진가을 서리때와도가티 몸이부들부들떨리엿다

……○……

이윽고 홍첨지는 손을들어절벽끄틀가르치며 송서방에게 작전계획을 지시한다 『나는저끄템나무에걸게 자네는그미트로 이짝에잇는잣나무에 줄을걸게 자아 나를따라와!』 홍첨지는 마치 우리들이 뒷동산에 산보나가는 그 거름제로 그 노픈 절벽을 성큼성큼 기여올라간다 송서방도 나무가지를 잡으면서 그를따라올라가는데 조금잇다 그들의자최는산허리에걸린구름속으로 살아지고말엇다 그들이 업서진것도 잠깐동안! 그동안 어느새하나는 그어마어마한 절벽낭떠러지에서 까마득하게 또하나는 그미트로 오른쪽바위우에서 힐끈하게 올라지고잇다 아마 절벽끄테잇는것이 홍첨지겟고 그미테잇는것이 송서방이겟다 밧줄 그들이 부러잇는절벽은 최초그들이라고 올라가잇던비롱에서 정신으로족으로나온듯한듯 하드금한 낭떠러지다 그절벽그냥 떠러지가금방문허저내릴듯떠러저 굴러날듯한데 그우에 사람이부터잇스니미테서 처다보기만해도 손에서땀이난다 먼저우에서 홍첨지의줄이 흘러내려와 이슬은「리결」이라고해서 떠나무검질로매는 상당히 굵은 통아줄인데기리가 삼십발가량된다 시방홍첨지는 이줄을 드리우면서 줄을송서방게로 내려온다 송서방에 다다르자 한손으로줄을 잔뜩쥐고 저우발끗만으로 절벽을 디디고 우선잣나무한그루를 흔드러보면서 이만하면 넉넉하다 는드시 송서방의 줄대러기「코ㅣ친」를 시작한다 송서방은 홍첨지의 지시를바다가며 억개에 걸머진 밧줄을 내려서 그줄끄테 매여잇는 두개의 고에다 가 약면허봇다리를 단단하게 끼엇다 그리고 줄한끄트로 꼴라잡은잣나무등치에 흘려걸고 그끄틀 절벽아래로 축내려드리운 다 이리하야 줄한끄틀 고가되여 두다리에 끼우고 또한끄트론 나무를걸처 절벽미테 드리운채 그줄을 쥐고차츰차츰내려오는데 아래로 내려오기 점점 올라가는것은 마치우물에다 줄드레박파가튼이치를리용하고잇다

……○……

홍첨지도 이와가치 낭떠러지우에잇는 나무에다 줄을걸친것이다 이제부터는 홍첨지와 송서방이 나란히디룽디룽내려오는데 요지음 명색등산가들의「록클라이밍」은 여기다대면 도련님들의 배부른 작난에 지나지 못하는것갓다 시체의 등산가가「로ㅣ프」를 걸고 큰모험이나하는드키 서두는것은 기실은 그조종이 옛날 옛적부터 이들의 엄숙한생활에 도려잇는것이엿다 절벽의중턱에와서 바위와바위가 겨진그틈사구니에서 두사람은부즈런히 무엇을주서넛옷 억개에 멘 바구니속에다 쉴새업시따넛코잇다 미테서 처다보노라면그 저 검푸른 절벽바탕에 아무것도 업서보히어 공연히 헛손질만하는것갓다 석이란 흔히 왜기로는 새캄안것인줄만 알엇는데정작내중에알고보니 석이의등에부튼 안쪽(裏面)이 새캄한것이고 표면은 열푸른여두색으로 되여잇다 이것이 우리가흔히보는 다 말른새캄한석이가 아니라 사라잇는 푸른석이인것이다 한군데서 거진다따고는 또조금식줄을 주며 내려온다 시방그들의목숨은 이줄에달려잇고 또는그줄이 걸처저잇는나무 한그루에 달려잇고 또그리고 줄을쥐고잇는그 의손아귀에 달려잇다 이와가티 목숨을한가락바ㅅ줄에 달고 오랜세월을두고 생사의기로에서일을하는 그들에게서 어떤신념이 엇을것이며 령롱의속옷을 삼가벗기거던 어찌산에치성을 드리지안흘것이가 이에비로서 그들의산에대한 타보(禁忌)의 절실함을느끼면서 하마떠러지면 어찌하나 저나무가 빠려채빠지면 어찌하나 저줄이가 손이지처서줄을놋으면 어찌할꼬하는 조마마한생각에 미려잇는 우리들이 오히려몸이 떨니는것이다 이날이른새벽홍첨지와송서방이산에치성을 드리고 와다지만우리속인이 따리왓스니 이때문에 탈이 나면 어찌할꼬! 지난밤 홍첨지 에게서 드른말이 갑자기 생각낫다 그전에 리씨성을가진 석이따는 로인이 명경대(明鏡台)에서 석이를 따다가잡간 줄을노코 나무를 디디고잇섯는데 튼튼한 나무가지가 뚝 박게 부러저서 떠러저 죽고제천(堤川)서 와다든"성서방"이라는젊은 사람은「산수압」절벽에서남의 석이따는것을보고 선게생각하야 줄도업시 기어올라가따보려다가 그대로 떠러저서 즉사하고 만것이 모두가 그전날주색의 금보을 범하고 산에치성을 드리지안흔 탓이라고햇다 우리는 꼴미테서서 오르러보며 남들레 이날이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하엿다 이욱고 송서방은 꼴미트로내려오고 홍첨지는 절벽허리에내려와서도한번 줄을서려 나무에다걸고또 한쪽 석이를 더따고내려왓다 이날 따석이가 만치못하야 한합밧게 안되엿섯다 한니파리가 손바닥절반만큼 자라자면 삼십년이걸린다는 천년버섯금강산석이는이와가티하야 우리의 고급요리상우헤 오르는것이다(사진은 절벽에서 석이를따는 홍첨지)

# 本格的霖雨期에

## 昨年보다十餘日일다르

### 各地水防團·水魔의狂亂을警戒中

연일 내렷다 머젓다 하는 비가 줄처럼 활짝개일것갓지안허 이제 날세가 아주 장마가 진모양인데 작년에는 다행히 별일없이 지냇스나 해마다 조선에는 여름 장마철에 수해에 쓰린맛을 보고잇는 터임으로 이번날세를 가지고 경성측후소로 그곡절을 무러본바 구일 한울기식 기온차게 내리다머젓다 하는비는 황해(黃海)에 잇던 저기압이 남쪽으로 빠지지안코 북동(北東)으로 이동하며 점점우세한 것으로되여 현재 신의주(新義州)부근까지와잇는관계로 이날 조선의 중부이북에 비가 내리고잇고 남조선은호리고잇다 이번비가 아주본격적장마비로 보겟는데 이번장마는 례년에비교하여 보면 그절마는 칠월하순에 시작되엿스니작년에 비교하면 약십여일이 일느다 이번장마가 순조롭게지나가면 금년에도 풍년이 여부업겟지만 비가오는표수가 한풍안 죽계속하야 내려서 오십『미리』백『미리』가오는것이 아니라 마치소낙비처럼 와다마렷다 하는것이 자못시원치 못하야 금후의 천후에 대하야 낙관을 허락하지 못하겟다고한다 도참대리이타금년으로넘 금년여름수해만면하면모 원조선은하늘에 우순풍조를빌어마지안코잇다

# 力과熱의大搶攘戰

## 豪壯·力士들의意氣蓋世

### 第二回全朝鮮씨름大會初夜盛況

조선씨름협회주최 본사후원의 제이회 전조선씨름 선사권대회는 예정과가티 구일오후일곱시 반부터 본사대강당에서 첫날밤의 막이열리엿다 조선에서 제일전통이길고 역사가오래며 가장 사나이다운경기를 구경하겟다고 판중은 장마비를 무릅쓰고모혀 삽시간에장내를 차게하야 빈틈이업섯다 경각이되자 팔도에서모인 육십명 맹장들이 입장하자 총무위원 고봉오(高鳳梧)씨의 사회로 입장식이열리어씨름협회 회장 이극로(李克魯)씨의 씨름의 유래와 씨름경기의 윤리(倫理)에 대하야 뜻깁게 개회사를 맛치고나니 작년의 선수권보지자 함흥(咸興)현명호(玄明鎬)군이 출전선수를 대표하야 선서(宣誓)를 끗내이자심판부 김윤근(金潤根)씨의 주의설명이 잇슨후 뒤니어대진표(對陣表)에 의한 제일회전이 일반외씨름 청년화판 고경입(高庭立)군과 황주(黃州)송병규(宋炳奎)군의 대전으로첫막을열엇다 그리하야 경기는 갈수록 열이노파저서범과 용이싸우는듯파헐이부드치는데장부의 씩씩한용경이유감업시발휘되엿다 판중은 손에 땀을쥐고 침을 삼키며 각각 제고장의 용사를 성원하야 장내는 박수와 부르지즘으로 터저나갈듯하얏다 그리하야 제일야는 오후열시에 삽회전을 끗내이고 나머지 준결승과 결승전은금십일밤 오후일곱시반부터 열기로하고 선황리에메회하얏다 (사진상은 입장식원형은경기광경하는열띠된광중)

## 十七歲少年 父親돈携走

시내 향촌정(香村町) 십사번지김창도(金昌道)씨의 둘째아들용섭(龍燮)(一七)이는 유일오전 열한시쯤되여 자기부친돈 일백사십원을 훔처가지고 행방을 감추엇스므로 그의 부친이 팔일아침에 소관서대문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고한다

# 地方官吏再教育

## 能率增進을目標로 各道에行政講習會

총독부에서는 지방행정을쇄신하고 시정방침의 철저강화를위하야 부, 군, 도(府、郡、島)단위관청직판리의 재교육을 시키기로하엿다 어것은 각도에따라 각기지방행정강습회를 개최하는것으로총독부의 지방관리양성소와 함께 제일선의 지방사무능률의증진을구어 목표로삼아 기초적법학과와 실외에충독의 시정방침의 철저와 황국신민의 모범인물로써 실천적 교양을주자는 것이다 여기는 각부, 군, 도에서한사람식 청강하도록 하는것이다

# 揮發油節約

## 地方官廳에도徹底通牒

총후(銃後)의 휘발유의 적극적절약에 대하야 총독부당국은 민간보다 솔선해서 실행하고잇는데 아울러 각지방판청에서도 철저하도록 칠월이래의 소비량을 매달보고하도록 통첩을띄엇다 이것은 칠월이래의 소비량을 절약표준으로삼아 그전보다 매달 휘발유는이할오분 중유는일할오분의 절약실효를 내인방침이라고한다

## 不通中의內地各線 九日부터大概開通

【大阪電話同盟】연일호우(豪雨)의 피해로인하야 사일이래 불통중이든 동해도선(東海道線)노옥(蘆屋) 가길(住吉) 사이는 구일오전사시반부터 개통되엇고또 가길 유갑(六甲)사이도동시각에 개통되엿스므로 대판(大阪)수마(須磨) 까지는 직통전차를 운전하는중이다 그리고 산양선(山陽線)수마무자(舞子)사이는필일오후 팔시오십분부터 개통되엿다

# 生男發願미끼로 許多婦女를弄絡

## 被害者中에某官廳員의妻까지

### 점쟁이金士日의罪狀愈出愈奇

기보=며칠전본정경찰서 형사대가시내주교정(舟橋町)모처에서체포한점쟁이김사일(金士日)(三〇)에 대하야는 그동안형사의 담임으로 엄밀한취조가 계속되고잇는데 이러무명한 점쟁이에게 속은가해자는 이때여명의 대부분이 시내상류가정의 상당한 지위에처한인테리여성으로서 단순히 금전만을 편취당한것이아니라 개중대다수의 여자들은 일무지한 점쟁이에게 속아서 적극히 추악한 관계를 맺고잇는것이 속속판명되고잇다 그리하야 그판계자는 시내관수정(觀水町)허필옥(許必玉)(가명)외 수십명이 동장하얏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궁병오로써 아이를낫치못하는 태극도(太極圖)를 서어머리업는 두어를보아준다고 가지고 농낙하야 마침내 정조를 유린한것인데 피해자중에는 이모의 내모관청의 간부로잇는 이의 부인까지 끼여서 실로 엄청나게 드러나는 내용이 백일하에 따라상낫스며 아프로 취조에 주면이 목을동요지도 모르다하야 동서에서는 국비밀리에 진중히 취조를계속하고잇다

## 違規自動車運轉手

구일오전 열시경에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 총독부아페 자동차의 흙아뒤게하는 장치를하지안흔 화물자동차한대가 지나가는것을 그곳파출소원이 발견하고 이를정지시키려고 햇스나 그대로 도망가고 말엇스므로곳 이수상한차를 각지에 수배하여 자견결과 부내무교정 부근에서 이를잡아 조사한결과 이는부내경정(京町)에잇는 동아공업회사(東亞工業會社)의 차로서 운전한사람은 그회사사람인 이호근(李虎根)(二〇)으로 판명되엿스며 그는운전면허도 업는것이 란로

# 軍人과遺家族에의 感謝週間實施

## 內務局에서『軍聯』과協力

장기전시체제아래에서 총후의 모든시설의 정비확충에 활발한 활동을 개시 하고잇는 총독부 내무파에서는 조선군사후원연맹파 협력하야 군인과 그유족가족에대한 감사한마음을 국민전반에 더욱철저하도록 감사주간(感謝週間)을 실시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해마다 일정한기한을 정해서 이것을 감사주간으로삼고 총후활동의 여러단체를 모조리움즈겨서 군인의유ㅣ가족에 감사원호활동을시할방침이다 이박게 일반군민의 긴장한이자 칫하면 풀리기쉬우니 이러치아니하도록 다음의멋가지를 아울러 실시하려한다

一、전사자의 전상자의상황을 조사하야 국민교회의 자료로삼을것

二、전사자의 무덤을깨끗시하고 생도, 아동들을 각급성묘케할것

三、일상생활에 상이병과 군인가족에게대하야 따뜻한정의로서 대하도록 일반국민을 지도할것에 노력할것

# 開店看板으로挾雜

## 千餘圓어치商品詐欺하고逃走

새로상점을 낸다고 물건을천여원어치나 주문해다가는 이것을 그자리에서 오ㅡ든바이로혼 반하야 딴데다가 되팔어먹고도망을 처버린 스피ㅡ드 사기사건ㅡ본적주소 미상의 윤영섭(尹英燮)(三五)이란는자는 부내사정(寺町)백칠십삼번지 식료품도매상 대경헌(大京軒)외교원 박영세(朴榮世)(三五)란 자와공모를한후 신설정(新設町)백사십팔번지의 일호에다 새로 점방을내는드시 꾸미고 열흘동안차용료 오십오원주고 박면개를빌린후 유월이십구일 전기식료품도매상인 대경헌에가서 시골서땅을 팔어가지고 장사하러왓스니 개점용물건을 보내달라고그럴듯하게 속여서는 술 맥주 파이애플등 천여원어치를가저갓다 한다 그리고서는 물건이도착되는족족 미리 예약해 두엇든 오ㅡ든바이에 태평통(太平通)이정목 지나상인 곡금산(曲金山)에게 되팔어먹고 그날로 도망을 처버럿다한다 보고를접한 동대문서에서는 이래범인을 엄탐중 이번에 주범인 윤영섭 박영세를 비롯해서 상품을 사들인 지나인 곡금산까지붓잡거되여 방금종노서에서 엄중취조중이다

## 白衣勇士慰安 特別放送中繼

사변일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 백의용사를 위로하려고 경성중앙방송국(DK)에서 편성한 용사위안의 밤은 팔일오후한시부터 용산육군병원에전개되엿고 『마이크』를 통하야 전조선에 중계되엿는데 백의용사들아메노코 동대문소학교사년생 고교무(高橋武) 덕수소학교 사년생이춘녀(李春女)양군의 용사에게 위문하는 인사에게속하야 유치원아동들의 창가 시음(詩吟)가 요곡"DK"악단의 애국행진곡(愛國行進曲)연주등이잇서 용사를 저욱히 위안한바이섯다한다

## 씨름大會戰績

왼씨름部

◇第一回戰

宋炳奎(黃州)2…0高庭立(普學)

朴哲鍊(體研)2…0金東爀(道廳)

許承和(鐵城)2…0李茂鍾(延專)

李成株(新浦)2…0李丁燮(京城)

金成珍(雄基)2…0金學敏(咸州)

張基虎(晉成)2…0金善學(安州)

羅允出(大邱)2…0嚴漢龍(京畿)

玄明鎬(咸興)2…0李春得(安州)

金明龍(晉成)2…0李祥鳳(京畿)

玄寬彦(黃州)2…0朴春秉(元山)

趙重行(延專)2…0李福錫(興水)

朴興健(咸興)2…0申澤善(安州)

◇第二回戰

朴興健(咸興)2…0李亨培(毅寧)

許承和(鐵城)2…0朴哲鍊(體研)

羅允出(大邱)2…0張基虎(晉成)

玄明鎬(咸興)2…0金明龍(晉成)

玄寬彦(黃州)2…0金商龍(新浦)

趙重行(延專)2…0金恒洛(洪原)

李成株(新浦)2…1金成珍(雄基)

◇第三回戰

玄寬彦(黃州)2…0趙重行(延專)

바른씨름部

◇第一回戰

許湖彬(廣州)2…0崔弘柱(楊州)

崔翊旭(京城)2…0金林石(京城)

朴大根(京城)2…0李丁燮(京城)

金三文(京畿)2…0金龍洙(利川)

朴興徹(咸州)2…0李柄基(京城)

洪東武(京畿)2…0崔廷鎬(龍山)

金鳳洙(利川)2…0嚴漢龍(京畿)

◇第二回戰

崔翊旭(京城)2…0許湖彬(廣州)

朴大根(京城)2…1金三文(京畿)

洪東武(京畿)2…0朴興徹(咸州)

趙國衡(咸平)抽籤 金鳳洙(利川)

中等學校部

◇第一回戰

高庭立(普學)2…0石在德(晉成)

◇第二回戰

黃京模(培材)2…0鄭東燮(晉成)

蔡昀鎬(普隣)2…1陳相濬(晉成)

黃麟振(工業)2…0金明龍(晉成)

洪永均(晉成)2…1高在英(漢藥)

李秉敏(普學)2…0李熙雄(晉成)

洪性稷(普隣)2…1張基虎(晉成)

姜乃坤(工科)2…0朴楨燮(普隣)

高庭立(普學)2…0崔應洙(晉成)

◇第三回戰

黃京模(培材)2…0蔡昀鎬(普隣)

黃麟振(工業)2…0洪永均(晉成)

姜乃坤(工科)2…0洪性稷(普隣)

李秉敏(普學)不戰勝

등씨름部

金南龍(新浦)1…0羅允出(大邱)

宋炳奎(黃州)1…0朴興健(咸興)

許承和(鐵城)1…0玄明鎬(咸興)

玄寬彦(黃州)1…0許承和(鐵城)

宋炳奎(黃州)1…0金南龍(新浦)

◇決勝戰

宋炳奎(黃州)1…1玄寬彦(黃州)

## 今日의運動

▲씨름=朝鮮씨름協會主催、本社後援 第二回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 第二日…準決勝、決勝戰 午後七時半 太平通 朝鮮日報社大講堂(觀覽料=一般四十錢 學生三十錢)

▲野球=大每主催 第十二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 朝鮮最終豫選第二日…全京城對平實(午後一時) 城津鐵道對 大田鐵道(午後四時半) 以上京城球場(觀覽料=指定席五十錢、一般三十錢)

▲卓球=第七回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 朝鮮豫選第一次豫選 京城豫選會 午前十時 京城帝大醫學部食堂(觀覽無料)

## 曆

▲月十日(日曜)陰六月十三日 ▲干支 癸卯 ▲日出 午前五時二〇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九分 ▲日入 午後七時五十七分 ▲畫間 十四時三十七分 ▲月出 午後六時三分 ▲月入 午前三時十五分 ▲滿潮(仁川)午前二時四十五分과午後三時四十五分

## 딱총

시국판계로 평경의 여름동안의 밤일을 폐지하리라고、그것쯤도 비상시의 이때이거던。

○

쌀값이 또올랐다 어느해나 이때쯤되면 쌀값이 오르기는하다해도올해가 까가 놀즘이때리섬 상치안흔걸。

○

하기야 직업엇기 힘든때에 아지드는히 부러잇고 일하기가 만평이 아니어던가。

## 今夜

全朝鮮씨름大會決勝

十日午後七時半 朝鮮日報社講堂

雨天不拘決行 (觀覽料 一般 四十錢 學生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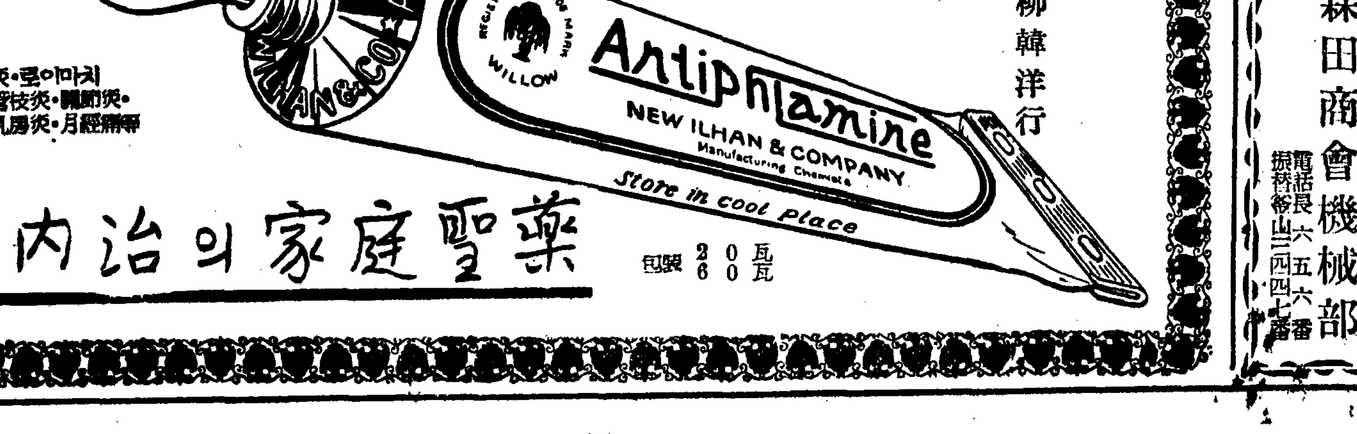

世界的으로愛用되는 アンチフラミン

안치후라민 (Antiphlamine)은 肺炎·感冒等을 爲始하여 其他各種炎症에卓効가잇는 外塗內治(겻트로발러內治하는)藥으로서 各國에서 널니使用하여오든中 더욱 今年과가티 氣溫不調로 肺炎·感冒·咽喉炎·胸痛等으로苦生한 患者에게는 特히本劑의 効果 가偉大함이 證明되엿습니다。

本劑가 普通濕布보다도 卓効가잇는것은 그有効成分이 곳患者에滲透하여 消炎作用을하는同時에 神經을刺戟하는 老廢毒素를 除去하고 血行을잘되게하여 鬱血을업새는 作用이優秀한까닭입니다。

그럼으로 肺炎·氣管支炎以外에 神經痛·肩胛痛·腰痛等에도 卓効가잇고 또한 婦女의月經痛에도 本劑를 下腹部에바르면 疼痛이停止되고 行經을順調롭게합니다。

또한本劑는 患部에발너도 何等刺戟을 이르키지안코 氣分을爽快케함으로 病院에서는勿論 一般家庭에서도 널니使用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류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腺炎·月經痛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外塗內治의家庭聖藥

包裝 20瓦 60瓦

조흔束子의選定에는 亀の子束子의商標와 文字에注意! 信用못할模造物잇슴 東京 西尾商店

白頭山特產 滋強飲料 ツルチュク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町 振替大阪…番 國民書院日報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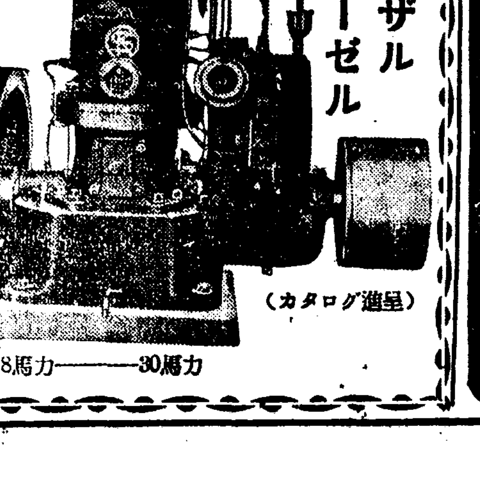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國民中學講義錄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合本을 定價一圓九十錢에投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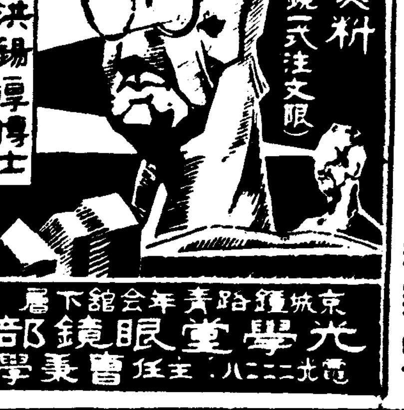
ユニバーザル 低壓ディーゼル機關 始動即時 簡單堅牢 重油約一合三勺 費用每時一錢三厘 東京內燃機關 釜山配給所 釜山府大倉町四丁目 森田商會機械部 電話長六五六番 振替釜山三四四七番




香薰이넘치는頭髮 자랑스러운頭髮!
그것은金鶴이만드러낸頭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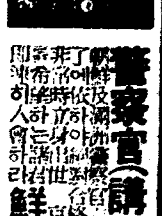
金鶴香油

正確한眼鏡은 檢眼無料(眼鏡一式注文時) 檢眼 洪錫厚博士



京城鍾路青年會館下層 光學堂眼鏡部 主任 曹美學

警察官(講習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 中部版

## 水道送水管破裂 畓五町步에浸水

【仁川】 지난칠일오후여덟시경 인천부 송현정(松峴町)지역에 잇는 수도송수철관(水道送水鐵管)이 이상이생기어 벌어진 틈으로 물이 넘어나와 부근일대를 범람하야 현재모심은논 오정보에까지 침수되여 인천부청 수도계에서는 총출동하야 인부를 동원하야 작업을시작하얏스나 파괴된부분을 일시에 부러는 복구는되여 점점 갈수되는상태이나 수일전부터온 비는 인천부 일대에 이상미 다 하므로 이론인하야도 상당하야 이용이다 지금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걸리리라하며 인축의피해는 업섯다

## 仁川埋築地에接居한 갈곳업는細窮民들 期日迫到로府廳에陳情

【仁川】 항도(港都)인천은 공도(工都)인천으로 발전하는 일방 북인천방면을 중심으로 내지대재벌들의 중공업(重工業)공장이 부내 송현정(松峴町) 화수정(花水町)의 해면지선매축장에 공장지대로 기지를 전부 매수하얏슴으로 공장지대로서는 현인천의 지역(地域)이 불족하다하야 재이차 론부구의확장을 실시하려고 그계획을세워상부에 신청중이라함은 이미본보에수차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작년봄에 부내화수정(花水町)매축장에 건축된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朝鮮機械製作所)에서는 인천부의 소유지인 화수정(花水町)십구번지 로부터 백십번지까지의 약일만평의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대를 매수하야 재이분공장을 건축하려고 그들빈민을 철퇴하라는것을 인천부청에 의탁하야 인천부에서는 그들빈여호를 금칠월말까지 전부 철거를 명하엿스므로 주민들은 갈곳이업슴에도 벌려가 큰 철퇴령을 밧자할수업는 주민측으로서는 인천부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구일오전십시에 팔십여명의 주민이 인천부청에몰려와서 그중대표자로 성락순(成樂順)송광주(宋光株)외삼인이 수산(守山)토목과장을 면회하고 구두로 진정하엿다는바 그들의 요구조건으로는 철거기한을 연장하고 처재장소를 정해달라는것과 이전비를 헌불가를 추정해서 상당히 지급해달라는것이다 그러나 부당국자로서도 어떠케하겟다고 확언을하지안흠으로 그들은 그냥도라갓다는바 이문제가일반직으로 중대시 되는바이며 일반은 부당국과 그제작소에서어떠한 재단을 나리는지 주목을 이끄는바이라 하며 부토목과장의말을 들으면 다음과갓다

### 守山土木課長談

이문제는 여간 큰문제가아닙니다 이전비는될수잇는대로 물가를상승하야 지급하게지만 선결문제가 세민들의갈곳인데 로서 어떠케 할수업스며 개인으로는 동정하는바이나 대국적으로는 큰일입니다 장소는현재로 고려중입니다 하여간 철거기일이박두하니 기게제작소와상의하는수밧게업습니다

## 京城府總豫算의 約一割程度削減 市街地計畫과土木事業延期

경성부당국에서는 총독부의예산절약방침에 순응하야 금년도 총예산일천칠백여만원중 일할정도의 삭감을 단행할모양인데그 결과 재원을 기채(起債)로써엇는 시가지계획제사업중 구획정리사업과 국고보조를엇는 토목사업등이 상당히 연기(延期)또는 중지될수밧게업다고한다

## 木材窃盜는 前郵便局員

【仁川】 현부 대화정(大和町)사백륙십번지 에둥윤용섭(尹容燮)(二七)은 지난 사월삼십일경에 부내빈정(濱町)십이번지 안능(安能)재목점에침입하야 『베니야』수십원어치를절취하야 인천우편국뒤공간에 장치해두엇다가 지난오일오후두시경에 인천우편국근처에서 배회하는것을 국원이발견하고 인천서에 신고하엿스므로 서원이와서체포하야 취조한결과 그자는 인천우편국편게에서 사오년근무하다가 부정행위가잇서서 해직당하야 일정한직업이업시 도라단니다가 전기 안능상점 재목을절취 하여다두고 팔려다가 발각되엿다하며 여죄가만흔모양으로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 倉荷證券詐欺

【仁川】 현주소를 진남포룡정리(鎭南浦龍井里)에둔 김윤경(金潤璟)(三八)은 수일전에 진남포에 잇는 공익창고합자회사(共益倉庫合資會社)의 창하증권(倉荷證券)을 인천부 해안정(海岸町)에 잇는 광신상회(廣信商會)에와서 이전거래한것을 기화로 고곡용가마니(穀用叺)이만구천여매를 위조하야 증권을발행하야 전기

## 銀紙와國防獻金 七日憲兵司令部에遝至

사변일주년기념일인 지난칠일 은지(銀紙)를 인부에게 들여가지고 대화정(大和町)헌병사령부를차저온노파가 잇섯다─그는시내수교정(水橋町)팔십팔번지 영목(鈴木)(七五)라는 노파로서 사변이후 국방헌금을 할열성을가지고 여러가지애를 써보앗스나 가게가빈하야 초지를 이루지 못하므로 담배곽속에든 은조히를모아서가지고온것으로서 헌병사령부에서는 노파의 적성에감격하야 은조히를다라보니 십칠키로사백몬메나 되엿스며 더욱돈십원까지 첨부하야 헌납하얏다 그날동헌병사령부에 헌납한 금품을보면 다음과갓다

▲千圓以上 大和町一丁目三三 膳本恒太郎 旭町二丁目國防婦人會 旭町一丁目愛國婦人會 ▲小學校慰問品獻納 密尾小學校慰問袋四十二個 銀紙一貫金三圓五十六錢

## 緊縮된生活속에도 希求하는精神慰安

### 人間의弱點을如實히나타낸興行界의奇現象 事變下의各劇場超記錄的好績

사변일주년동안─여기에 대응한여러가지의 전시체제가 생겨나고 그체제에따라서 일반의생활이긴장되여서 최대한으로 소비를축소시키고잇스므로 여러가지오락방면은 극도로 한산하야 그존속까지 염려되고잇섯는데시내본정서 관내의 각극장의 흥행성적을 살펴보면 일반의 예상파는판관으로 한산이아니라 상승율보이고잇서 주목을끈다─ 예년의 통계로 보아서 일년동안 흥행계의 수입은 유월중순부터칠월중순까지를 소위 한산기라하야 수입감(收入減)을 면치못하는것이며 금년은 예년과도달라사변중의 한산기인관계로 아조 말할형편으로 수입감이 심하리라고 예상하얏는데 지금까지의 경향으로는 작년동기에 비하야 약일할오부의 수입증가를 보이고잇다 이러한기현상은 여러가지로 규격이 엄격한 생활체제와일상(日常)행사에 지치진 대중이사변전보다 훨신 『정신의 양식』에 대한 희구(希求)가노파 젓슴이단적으로 표현된재미잇는 현상이라고할수잇다

## 前科犯의物盜犯 格鬪끄테逐逃捕 仁川署에서嚴重取調

【仁川】 대전부상반정(上盤町)에 현주소를 인천부 대화정(大和町)에둔 전과사범 최순덕(崔順德)(二二)는 지난구일오전세시경에 부내서경정(西京町)정순구(鄭順球)는기점에잇는 금고에 현금사십원과 시계등 십여점을훔쳐가지고 도망하는것을 그상점점원이 발견하고 부내경정(京町)파출소에 신고하엿스므로 이수봉(李守鳳)순사가 범인의행방을 찻기위하야 신정(新町)화전(丸三)파출소부근지 룡순행중 행동이수상한자를발견하고 체포하려할때에 도망하는것을 추격하자 폭우중에 전시가를도라다니므로 호자체포키곤란하야 평천(平川)순사의응원을 어더 추격한지 네시간만에 오전일곱시에신정공원(宮田)파 자정압해서체포하려할때 순사에게 폭행까지 하엿다하며 본서에다 려다가 취조한결과 가명으로 부르젓다는바 엄마전에 인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자로 취조를당하고 나간뒤에 범행을 계속하야 재범한것이 뚜렷하여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 가마니滿載한帆船 河岾近海에坐礁 人命에는損害幸無

【江華】 강화군하점면망월리(江華郡河岾面望月里)에사는 이병춘(李炳春)은 가마니 지경상인으로 지난오일 밤늣게 가마니팔천오백매를실코 인천방면으로 수송중 갑자기 급해지는 조류(潮流)에 휩쓸려 들어간 망월리해안오교천(望月里海岸吾橋川)근처에서 좌초되면서 전복되여 탑재하엿던 물건은 모두유실을당하엿다하는바 때가밤이라 구조의 손을밧지못하엿스나 인명에는 손해가업고 총손해액은 일천유백원에 달한다고한다

## 軍用豚皮加工 實習會를開催

【驪州】 괴현제하에따라 이번에 새로히 통정할 돈피(豚皮)에대하야 금후군용피로 대량생산에 힘쓸 예정이든바 상당히 만흔 모양이라하며 이번에 통정된것은 ... 등을 조합하야 공동판매에 ...

여건이는 수이여건으로 뒤에여 도 상당히 만흔 모양이라하며 발굴 업는소중이라한다 이제경로를한다하얏슴으로 어떠 보도 되고잇거니와 이번에야주경찰서에 모피 및 군조합로 최기불어에의하야 도피에대한 라한파실지실습회를 개최키로되엿다는데 각면관계자와 기타경방자동도로부 모히기로되엿다

日時 九日 午前 / 場所 驪州郡廳 / 參加面 驪州、北內、康川、金沙、興川、大神、占東、加南、陵西、 各面 ...

## 驪州聯盟結成

【驪州】 시국의 중대화함에 따라시국인식(時局認識)과 총후보국(銃後報國)을 강조키위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朝鮮聯盟)과 도련맹(道聯盟)이 결성됨에따라 여주도 군부(郡部)로서의 제일착으로 결성되야 지난오일 밤 공사이산관개단체와 편민다수찬집하에 창립총회(創總)를 개시작(古賀新作)부이사장(副理事長)에 유기동(柳基東)양씨이며 이사장(理事長)김영기주(金榮柱)부이사장(副理事長)송석태봉부(三宅通夫)외 신부영 평의원(評議員)정상봉치(井上豐治)외 팔명의 선정이잇섯스며 사변일주년 기념(事變一周年記念日)인 칠일오전십시경 비가나림으로 공회당으로 편민다수집회하여 성대한 결성식(結成式)을 거행하야 금후동련맹의 활동을 파가 주목된다

## 江華航路開拓者 兪鎭植翁의表彰式 十六日、江華에서開催豫定

【江華】 강화는 지리적으로 볼 때 섬이다 그러나 씨는 시리하야 한상바다를 건느지안코 국판게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는 대목에 통행할수업섬은 주지 꺼운일을 기념치안키로 되엿다 의사실이다 어가를 불우한도민 논조식을 일반은 알게되자 어을위하야 자기의반생을 항해업 때한 형식으로든지 씨의 다년에 바처서 팔만도민의 문화、의 공을 표창하기를 바라마지 산업보급에 ... 강화도 안는이때 신문기자단체인 목요를만든 강화도의인인 우석유 회(木曜會)에서는 일반의기대를 진식(友石 兪鎭植)씨는 도민의 모아 오는십륙일 오후한시부터 자부와가티 일반도민경의의 초 강화읍 구군청사후원에 우석유 적이 되어잇는바 금년칠십이 때 진식씨의 찬하회를 개최키로하 고 준비에 분망중이다 그리하 야 삼백여 명사에게 초대장까 지 벌써발부하엿다하다 유지인 사는 오는칠일까지 회비이원 을 첨부하야 강화읍 조선일보 지국안에 목요회사무소로 신입 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寫眞은 友石 兪鎭植翁)

十一日 ... 十二日 ...

## 朝陽幼稚園主催 洋裁縫講習會 本報學藝部後援으로

시내연지정 조양유치원자모회(朝陽幼稚園慈母會)의 주최와본보학예부의 후원으로 양재봉강습회(洋裁縫講習會)를 오는십삼일부터 동이십일까지 일주일동안매일오후한시부터 동네시까지 그유치원안에서 개최한다는데회비일원은 십삼일에 가지고와야 되며 강사는사게의 권위자 임경혀(任貞爀)선생이라한다 그런데이번에 강습할종목은 남녀아동복 와이샤쓰를 비롯하야 부인네들이 집안에서 입는간단한양복과 치의종류와 남녀아동의흑한복동이라한다 그리고 강습바드러오시는분은 메돌자(尺)하도롱, 종이, 가위, 연필, 밀기장등도 가지고와야하겟다한다

## 驪州에도甘雨

【驪州】 경기도여주지방에는 이앙기이후 한발이 계속되어 전수가 고갈되는중 기보와가티설상가상으로 오천여정보의 망범한 지역에 도명령(稻螟蛉)이발생하야 시시각각으로 치식될으로 농가의우려는 극도에달하든중 지난칠일오후부터 감우가패연히 나리여 수량이흡족함뿐더러 해충도명령(稻螟蛉)의 자연구제에도 위대한효과가 잇슬것으로 농가의수미는 저윽히펴이리라한다

## 民業萎縮의防止와 中小商人의保護策協議 京城府에產業轉換座談會開催

경성부권업과에서는 구일오후두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시국산업전환좌담회(時局產業轉換座談會)를 열엇다 출석자는 부내중소상공업자의 대표자와 금융조합사며 은행조사과 관계상공회의소 도청 부청직원등으로 십여명인데 최근전시 경제체제아래일반 산업의 위축방지에대한방책과 저축장려와 소비절약에의한 구매력의 수축에대한중소상업자의 구제책에 대하야협의를 거듭하엿는데 수출산업과 군수공업에로의 전환에 대하야 구체적간담을하엿다

## 豚皮生產計畫

【仁川】 전시체제하에 물자동원계획에 의하야 피혁전시판리를 단행한다함은 주의사실이나 이에중요자원이되는 도야지가죽(豚皮)을 인천부에서는 수요(需要)방면에 남어하기로되여 부영도살장에서는 어돈피(豚皮)를 지난칠월일일부터 박취(剝取)를 시작하얏다는데 도살된도야지는 사천두가량이라는바 금년은 칠월부터 십이월말까지 일천오백매의 돈피생산계획을 세웟다

## 仁川에서도 合百團多數檢擧 徹底히撲滅시킬方針

【仁川】 인천부해안정(海岸町)에잇는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인천지점을 싸고도는 합백사(合百師)를 인천경찰서에서 수일전부터 속속검거하여오든중 팔일오전여덟시경부터 형사대가 총동원하야 부내해안정 취인소를 포위하고 전장〃요리〃를 기다리고 도로에배회하는 합백군십여명을검거하야 유치중인데 드른바에의하면 전후검거된인원수가 이십여명으로 금번에검거된이십여명중에는 전과자도 상당히 만흔모양으로 엄중처벌을 하리라하며 금후에도 합백단속체를 철저히 할모양이라한다

## 老父찻는全昌錫 本社와서哀願 市中을두루彷徨

(三菱)단키에서 이십년이라는 긴세월을 광부로지내다가 돈도별로 뜻대로 못벌어가지고 고향에잇는 늙은아버지를 맛나고저 도라와서 지금은 허므러진 옛집을 더드머 찻다가못하고 마츰내 서대문경찰서를차저 애원한 서울감영압태생으로 눈물의 주인공 전창석(全昌錫)(四一)은 칠일오후 본사를차저와서 자나깨나 이처지지안는 자기의 홀아버지 전삼보(全三甫)(六七)를맛나게 해달라고 애원한바잇는데 그는 방금 서대문정(西大門町)에잇는 경서려관(京西旅館)에 두류하면서 두루 자기부친의잇는곳을 찻는중이라한다 (사진은 아버지찻는 전창석)

작보=자기의 홀아버지가남의집 드난사리꾼으로 고생하는 정경을 참아보다 못하여 한번 크게돈버리를해가지고 효양을 해보겟다는생각으로 멀리 내지 장기현(長崎縣)으로 건너가 그곳에잇는 삼룡

## 精神病者 縊首自殺

【開城】 부내궁정(宮町)삼백구십사번지초치황(崔致璜)방에서 경박사리를 하던 ...

## 京城利川間의 車馬交通杜絶

【京畿】 지난칠일부터 한강상류인 광주군경안(慶安)아래강물이 부러팔일부터경성이천간(京城─利川間)자마의 교통은두절되엿다

## 노랑나비또猖獗 坡州一帶에夜襲頻頻

【汶山】 재작년도부터 파주군(坡州郡)으로들어온 경기도일부에서 노랑나비(黃蝶)의 습격을바더 일반주민들은 일대고통을 바더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파주지방에는 요사히독(毒)을가진 노랑나비가 발생하여 군내 주민들은 일대 수라장을 이르고잇다는데 그노랑나비는 나제는볼수업스나 밤만되면 화한곳을 따라 무수히 습래하야 사람에게 그나비의 가루가 닷기만하면그 즉시로 그자리가 종양판금륙륙(新府編入地帶)에는 또한 정충대의 만기개선기를하야 또다시 공기가 험악해가고잇는대경남 십이개소만은 다음과가티총대를 선정하엿다 하야 나중에는 못견디여 어린아이들은 몸부림을 칠지경까지 이른다는바 그호흡한 나비로인하야 두드러기 환자가 수천명이나 발생되여 일반은 저녁만되면 크게 불안중에 싸혀잇다

### 京南七町總代選定

【京南】 정총대(町總代)선거문제로 힘난이중첩한 신부편입지대(新府編入地帶)에는 ...

| | | |
|---|---|---|
| 梨泰院町總代 | 成 | 俊 |
| 同 | 南部總代 | 菊田 久男 |
| 同 | 北部總代 | 林 厚太郎 |
| 晉光町 | 總代 | 張 英 煥 |
| 西氷庫町總代 | | 殷 鉉 柱 |
| 東氷庫町總代 | | 朴 岐 陽 |
| 漢南町 | 總代 | 林 翊 相 |

## 六月中의慰問袋 五萬六百八十八個餘 =京畿道民의熱烈한精誠=

사변이래 일반민중의 시국인식은 날로기퍼가고잇서 보국의 적성도 이에따라 늘어만가고잇는 형편인데 사변후 금년오월까지에 경기도관내에서 전지또는 유가족에게 보낸 위문대(慰問袋)가 여미 상당량에 도달하며 유월한달동안의 성적을보면 관내에서 모집한든 위문대가 오만육백팔십개나된다고한다

## 仁川在住獨逸人 二百圓을獻金

【仁川】 지난칠일 저나사변일주년기념일에 인천부민의 충후적성으로 모험하는 일본사람들은 헌병대와 경찰서에서취급한것이 실로 일천사십원이상이던 그중에는 인천에거주하는 독일인(獨逸人)세창양행(世昌洋行)주인 『팔─시루한』 씨의 이백원을 헌부로 중정(京町)중천리(仲天理)씨등 기타전납(田屋商納)씨등의 천매원등 헌납이잇섯다

## 道立仁川醫院 新舘에移轉 九十兩日間休診

【仁川】 경기도립인천의원은 부내화정(花町)에 신축하든바와 갓거니와 이제동신관이낙성되여 전부이전하기위하야 구일 십일양일간 을휴진(休診)하고 십일일부터는 화정신관에서진찰을하리라한다

### 地方人事

▲韓緯鎬氏(坡州郡勸業課長)新任 人事次本社坡州支局來訪
▲洪在龍氏(國民精神總動員江華聯盟理事長)就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 漢江刻刻增水 九日午後二時半 三〃메─터〃九十

수일래로 내리는장마비가 작금에이르러 자못줄기차게 내린탓으로 팔일한강(漢江)물이 점점불어와다 팔일오후두시반현재로 한강물이평소때에는『메─터』표적양을 라서지안턴것이 삼『메─터』─구십으로 불엇다 아직은 증수되는모수가 그다지빠르지는안흐나 팔일오전중에 경무국에 들어온보고에의하면 한강의제일상류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정경이농 굴(忠州)제천(堤川)지방에서 발서부터 부근의수 상당히 증수되며으므로 금반도용의주도한 경계에여 염이업다한다

---


# 萬人共讚의天下名藥

# 食事倍加 陽氣倍加 活動力倍加

人生의最大幸福은 돈보다도 地位名譽보다도 健康입니다 이러케 重要한 우리의健康을 倍加할수가잇다면 누구던지 千金을 앗기지안코 家產을傾하야 이藥을 살것입니다

人生의 最大本能과 慾望은 食色、活動인바 百補丸을 服用함으로써 이 三大生理作用이 倍加되는것은 本社가크게 壯談하는것보다도

### 異口同聲으로

百補丸을 服用한분은 食事가느럿다 陽氣가 매우 조와젓다 무슨일에나 힘드는줄을모르겟다고 누구던지다갓치말합니다

###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百補丸을服用하여써 씩씩한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어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效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消蕩됩니다

# 百補丸

### 百補丸의世界的進出 米國에第一回特派員派遣

百補丸은 벌서 朝鮮과 日本內地안에서만의 靈藥이아니요 世界의靈藥이올시다 滿洲國과 中華民國은勿論 歐羅巴諸國과 南北米各國으로부터 注文이 遝至하는中이며 昨年以來 英、佛、米、伊、獨等 二十一個國에 百補丸輸出을 開始하얏스며 今般 또 第一次特派員을 北米에派遣하얏슴니다

# 조경포태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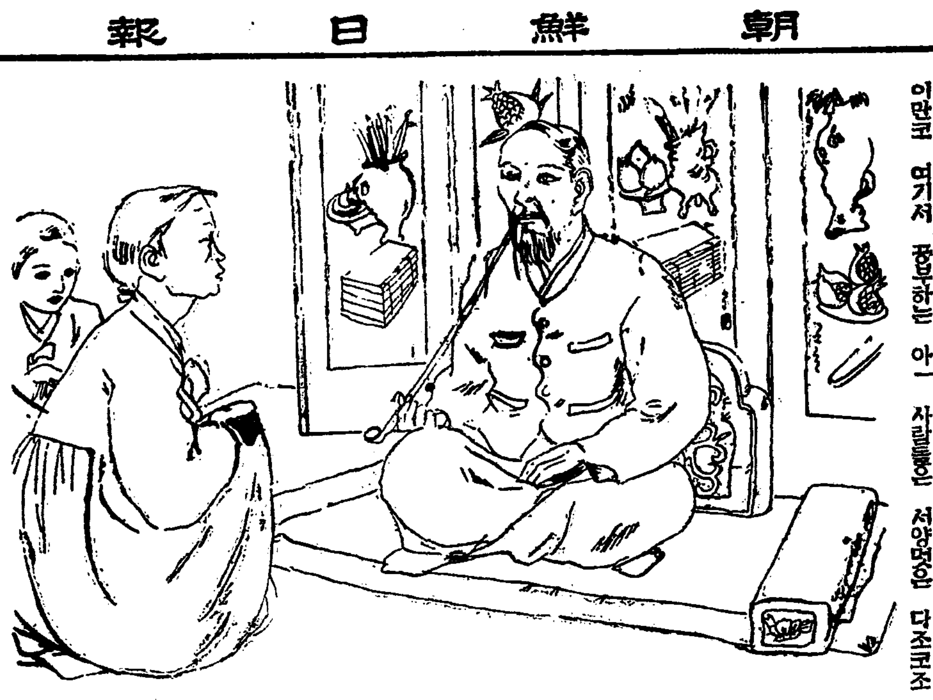
京城府堅志町五一
#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003426

長篇小說

# 薄命 (45)

韓龍雲 作　鄭玄雄 畫



誘惑【四十五】

「인제 차차하지 대런에 되것소 기생의절도 잘하기가 어려운것이오 요새 미친년들처럼 꿈벅꿈벅 하는것이 그게 기생의 절이오 그런데 저애가 이런데 서울가서 다련은 아이요?」

하고 선생이 말한다

「그렇습니다」

「고아이가 판계집이 뵈이는데 시골 아이라도 그러케 무루한집에서 자란것 갓지도안코 얌전하야 뵈이는데」

「글세 어떨는지오 그런데 선생님께 수고를 끼처야 되겟습니다」

「수고가 무슨 수고요」

「이것 소리좀 가리처 주십시오」

「그게야 수고될것 잇소 다른 애들도 가리치는데」

「그런데 어째어러케 조용하야요『하도』아이들도 업고요」

「여기잇는 아이들은 배워가지고 제집에가서 이키는 애들이 만코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잇지마는 저녁때가되니까 다갓지오」

「그런데 이애를 좀 잘가르처주서요 그러고 쉽게 배우도록해주서요 권번으로 보낼까하다가 거기가면 귀찬이니부에니 서가시기만 하고또그것을다배우려면 부지하세월이아니야요 선생님처럼 잘가리치는이가 잇나요 그래서선생님사숙으로 다리고 왓지오 아무런 월사금은 무슨짓을 하던지 또박또박 낼테구요」

「지금은 모두 쉽게 배기로만작정이야 그러면 무엇까지나 가리치시려우」

「갓게 가리칠수가 잇나요 시조짱이나 하고 잡가나좀 가리치고 그러치오 뭐 별수잇서요」

「지금은 거진 다그러란 말이야 인제 기생이니 소리니다 망햇소 우리네 절머서만 해도 기생이 잡가가 다뭐요 의례히 소리를 배랴면 처번에 목골고 사설 아니라고 시조를 조금 배우지오 평시조 여창지름、그러고는 정말 배우는것은 처음에 우조(羽調)를 배우고 그다음에 계면(界面)을 배우고 인제 그 다음은 가사지오 그러고 풍류 배우고 그런치 잡가란는것은 입에나 대보나요 하더니 지금은 시조나 몃장 배우면 고만『에라노아라 못노켓다』로 드러가니 노래판이 될수가 잇소 하니까 지금은 그게 소리지 노래가 아니오 노래와 소리가 달지오 예전로 치면 노래는 양반이오 소리는 상놈이오 그러치오 노래라니노래도 다망하얏소」

선생은 세상일의 허다한 변천에 변트듯이 한숨을 쉬면서 허연 수염을 어루만진다

「그말씀 다하야 무엇합니까그전의 조흔풍속 다업서지고남은것이 잇나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성인도 서속을 따른다고 세상되야 가는대로 지나지 어찌는수가 잇어요 더구나 우리가튼 어생이야 파리가튼 목숨으로 동혹이 번하면 세상인가보다 배부르고 등더우면 사랏나보다 그러치 그전 어야기를 해야 소용이 업어요」

「그나 그뿐이오 인제 조금엇 얼굴에 창연한베출 띄인다

송씨도 무엇을 생각하얏는지

「그나 그뿐이오 인제 조선 소리는 다 업서 집넨다 지금도 서양음악인지 무엔지 하는것이 드러와서그것들만 숭상하지 조선소리는 천덕구러이로 돌리지오 지금 사람들은 서양멋은 다조코조선것은 다 낫밧줄로 생각하지마는 그럴리가 잇나요 음악이야 조선음악을 따를수가 잇나요 노래로 말하야도『평조』『우조』『계면』 시조로도 『락』(樂)『언락』(言樂)『편락』(編樂) 여러가지가 잇고 기외에도『한닙』(大葉)이니반닙(半葉) 이니『존자진한닙』(頭擧)『중어리』(中擧)『막내는놈』(平擧)『만횡』(蔓橫)『소용이』(騷聳) 기외도 이루다말할수업소 그러한 노래라든지 풍류 하더란도 다른것은 고만두고 위선 장구로만 말하야도 지금은 한뭇해야 시조장단이 나치고 굿거리나 잡가장단 그런것이지요 하지만 그런것이 아니오 장구 장단이 초장 이십점 이장십칠점 삼장이십사점 중엽(中葉) 십점 사장십칠점 오장십삼점 대념(大念)삼십삼점 모두일백오십점이요 그러고가 진목중류로 말하면 약음이니거문고니 퉁소니 어쨋든 금석사죽포토혁목(金石絲竹匏土革木) 여덟가지요 그러 그것을 척하고 안젓스면 참 신선갓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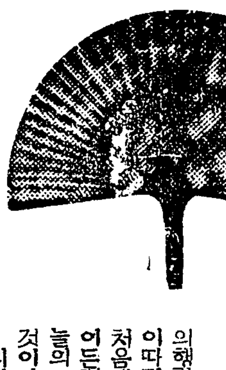
하는 선생은 할말이 아직 머럿다는듯시 담배를 부친다

## 演藝消息

### 降雨로延滯된『無情』의로케슌

【平南安州特信】『無情』製作中의 朝鮮映畫株式會社撮影隊一行은大同江邊로케ー슌을하기爲하야六日 來壤하여스나天氣不順으로待機中에잇는데 날이맑는대로 浮碧樓附近에서 撮影을 開始할터이바 아마주어 카메라맨의스냅撮影을 歡迎한다고한다 一行中다음의諸氏는 來壤人事次로八日本報平南支社를來訪하엿다

監督 朴基采 俳優 韓銀珍 玄舜英 崔南鏞 金一海 宣傳部 金正華



# 凉味萬斛의 부채

## 옛날埃及의壁畫에서 오늘은"되ー트리히"자 愛用하는부채로맨쓰

더、더위가 무섭게 우리 생활을 엄습해와다 여더위를잇는방법은 한두가지가아니지만 그중에도 손쉽게 어디서나할수잇는 척서(滌暑法)이잇다면 그것은부선 부채를손에 눈것이것이다 요새와가티 선풍기가잇는도회에잇서서는 부채가튼것은 그러케필요하지안흘넌지도 모르나 그래도 부채의운치와 그필요성을 저바릴수는업다 부채라고하더래도 태극선(太極扇)파가튼미선도잇고 또그야말로 부채도잇는것이다 뚱그런미선이 언제부터 생겻느냐하는것은 약 사천년전 애급의벽화(壁畫)로서 가장 정확한기원을 들수가잇다 이때의그림에는 왕후의행렬맨아페 미선을든 시종이따러가는양이 그려저잇다 처음에는 해를가리는 대용물어든것이 차츰발달이되여서오늘의 미선이되고 또부채가된것이다

미선은 지리적으로보아 일본내지、조선、지나、스페인、멕시코등지가 발달이되여잇고 열대지방즉인도(印度)나 아프리카에서는사용하지안는것은일견모순된듯하나 사실 열대지방은너무더워서 부채질해도 시언한바람이오지안으니까 이러미선가트는것을 사용하랴고도 하지안엇고 또사용할필요도 업섯다 그리고 미선이란는것은비교적평민계급에서 만히사용하엿다

조선서도 산부채라고 해서 농민들이 그하나만 가지면여름철 술집에서 안주를바더먹거나 흐른땀을식히을 담아먹기도하고 모기도날리며 깔고도안는 여러가지용도에 쓰이는 원시적인 부채도잇다 그것이줄고금인것이 태극선파초선(芭蕉扇)등이잇다

—○—

그러나 정말부채라고 하면 접어서가지고 다니는부채는그것이 한편으로는 지극히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귀중품이되기도한다 그뿐아니라 조선서만 치드래도 광대나무당이나 춤추는사람은 이부채가 업스면 그들의재조나 거술은 한층의미를가지지못하게된다

서양에잇서서도 부채라는것은 상당히발달이되여잇다그발달은 십육세기—저금부터사백년전후해서라고하는데 그후로 서양부채는 일종의호화로운사치품이되여서"레오포르다인"백작부인의 진주(眞珠)부채와 독일"루드비히"황녀의상아(象牙)부채등 모두유명하다 그리고 "스코트랜드"의"메리ー"녀왕이 가젓든 별갑(鼈甲)으로 맨근부채는 그중에도 유명해서 동양에까지 그형식이 수입된일이잇섯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찬란한 부채를쓰기는 유명한무용가중에서 만히애용되엿고 또실제로 무용할때 이부채가사용되기도하엿다 또 자국(歌劇)의히로인이쓰에 어 찬란한부채를든일이 만타

문화에서도 오스카·와일드·의『원더미어ー부인의 부채』는 그중유명한작품이요 영화에잇서서 제일감명키든부채의장면는 누구나 잘아는"모로코"에나오는 되ー트리히의반라체"와 부채 도좌·보아에와"되ー트리히"의 공비로『사막의화원』(沙漠의花園)에서되ー트리히가파초선(芭蕉扇)을가지고잇는장면은 아직도우리의머릿속에 또렷허남어잇다

(카ー트는『스코트랜드』의 메리ー女王이 愛用하든 鼈甲扇의記事中寫眞(上)은 羽扇으로춤추는광경 (下)는 朝鮮特有의太極扇)

(寫眞上은"美人遁走曲"下는"結婚十字路"의한場面)

### 黃金座·明治座 來週封切映畫

"結婚十字路" 『리카드·쇼ー프』監督으로『월리암·포ー엘』파『마ー나·로이』로 콤비로『포ー엘』은『차ー펜』라는 放浪家가되고『로이』는『딱ー치프』라는 洋服店경영자가되야 자지가자의 喜悲劇을 演出한다【十日부터 明治座에서上映】

"麗人遁走曲"과"人生劇場殘俠篇" 『麗人遁走曲』은『와ー리ー흐즌』와『마ー사·레이』『로버ー트·컴밍스』主演으로 結婚衣裳을 입고深夜에 自動車를 달리는 新婦가 엇저다 여기서 여러가지 演劇이 始作된다 다음 人生劇場殘俠篇은 岡千惠藏 小杉勇 花柳小菊等主演으로 青春時代 學惡時代를 나오면 大正十四五年頃의 日本青年의氣風을中心으로한 近來에 드믄名篇이라고한다——十二日부터 黃金座에서上映

## 여름에의 誘惑

물결은 언덕에 철석와 [illegible] 情에 자욱한 아담다 저거서 燈火의詩人 예ー소 자나다 어느배인가 巴里에 자다가 故國을 빠다 [illegible] 하는 싱그를 맛다 그때 벌로 싱그는 巴里 의정동미려서 世紀末的藝術에 파묻치어섯다 여보 싱그군 아 란島로가서우 거기가서 土民들과 함께 지내면서야 적 世上에나리다 저앤도 그네들의生活을 그리시우……

아란島는 愛蘭西海岸에 잇는 永遠히의로운섬이다 이섬에는 傳說이만코 神話가 자고잇다 저녁때면太西洋의안개가 자옥히 껴서 보는사람의눈에 灰色의感傷을 주는가하면 아츰이면限定업시 멀고먼 바다 저편에서 구름과 안개를 태우면서 해가 돈는다 文明이라고는 하다도 들어가저모한 純朴그대로의自然과 生活이 잇다

# 灰色感傷이숨은傳說의孤島에

## 爆火의詩人은空想의自由를차저

★ 金珖燮 ★

[illegible] 或時 저곳에서 보았즉한 青春이 오면 게란도 갓다주고 애게 들으라 오새 도한다

고리거에 아즘도 물을 저 저악은 [illegible] 아엇서서 [illegible] 등 바미로 [illegible] 저거도 하고 [illegible] 저다면 [illegible] 하고 꿈을 사랑하다가 눈에 어슴에 [illegible] 깨우거든한다。

바다 바다 바다 몰추자 바다다。

바다가 運命이요 바다가 生活이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다가 바다로 도라간다。

어머니들은 男便과 아들을 모두다 이 바다에 보내고는 동지서달 긴긴밤잠이지란도 잠을 일우지못하고 바람에들리고오는소리에 가슴을 바인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 빼앗기고는 寂寞에서오는 安定을 어드러한다 永遠한靜寂——바다——그것은 人生보다 넘무도크다 太西洋의 거츤海原이 어아란섬을 둘고돌아서 安定을 찻는사람에게 永遠한不安을 준다。

그러나 여자난한 섬에는 모든 空想이 自由스럽다。

—寫眞은 映畫『아란』島의 한場面—

# 오디라 JODK

## 歌詞【十日午後八時】

노래 金花香 〃 李月色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一）將進酒

한잔 먹사이다 또한잔 먹사이다 꼿껴거 주(籌)를노코 무진(無盡)무진먹사이다 이몸죽은후에 지게우에 거적더퍼 졍의...

## ★運★動★競★技★中★繼★

### 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

#### 十日午後八時半·朝鮮日報講堂에서

씨름은 가장 원시적(原始的)인운동이며 무예(武藝)의한가지입니다 조선에도 가장 향토적인운동으로 전승하야오는것이나 일반으로나야한테떠러진관계로 그것을 조장케해오지못하고 일부농촌에서 한가한때에작난으로 또는 일년한번백중때농촌에서 그모든종멸어서씨름의 존재(存在)가잇슬뿐입니다 아무런 무기(武器)의힘도빌옵가리는 방어구(防禦具)도업시 몸과몸이맛부터겨루는 그것은 참으로 남성적인무예인것입니다 그보급보편(普及)을꾀하고 열리는대회는이미二회를거듭하게되엿습니다

이대회의상황을『마이크』를통해서 들리어드리게되엿습니다。씨름중계방송은 이번이처음임으로 조선에 방송으로서도 의의잇는처시험입니다

## 講演（十一日午後八時）

### 氣候와文化

徽文中學 金道泰

계후(氣候)가문화에미치는 영향은참으로 드다고 봅니다 우리일상생활을 보아도 매일의기후변동으로 밧는 영향이큰것과가티 크게는문화와도 그가티불가분(不可分)한관계가잇는것입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살플이만코 순치안흔관계로 의식주에 조금도고생을 하지안엇습니다 그관계로 활동역(活動力)이 부족하고 게울려집니다 그래서 문화가업습니다 또추운한대(寒帶)지방에서는 너무생활의 여유가 업서서 사는데급급하는 남어지 자연문화(文化)가자라지못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문화는 대저방에서만 문화가잔보된것을 볼수잇습니다 이가령 온대는 문화를자라게하는온상(溫床)이 되도고 또그기후에따러서 성장하는문화의 형태도 결정되는것을 볼수잇습니다

## 連續野談（十一、十二日午後九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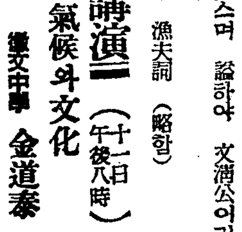
### 百中날밤 (二回)

申鼎言

백중날과 씨름은 조선풍속에서 업지못할 풍경(風景)입니다 이풋속은 에나 지금이나 일반이여서 꼴마다 씨름판이열린다면는 내노라고하는 힘센장사들이 몰려들어서 힘을겨누게 되는것입니다 옛날 곽산(郭山)땅에 한장사가잇서 매양씨름판에를 나가면는 번번히 소(牛)를 탓읍니다 한해에도 어름엇든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백중날에서 관중을고서 소를 끌각고할지음에 한소년이나오며 씨름하기를 청햇습니다 코우슴을치고 양잡고 때밀려는것은 몰...

(譯者) 漁夫詞 (略함)

(註) 作者鄭澈의字는季涵 號는 松江 宣祖朝人으로 左相에잇스며 謚하야 文清公이라 하다



## 放送プログラム

### 十日 (日曜)

◇午前六時 (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正午 (東) 時報

(大) 토ー키ー音樂ー大阪瓦斯(公演所로부터中繼ー 一、돈·코작크歌 二、아베마리아 三、故鄕歌 四、野營歌

合唱 돈·코작크合唱團 指揮 셀게ー아ー로프

◇同一時 回心曲 河龍男 金壽男

◇同一時一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笙簧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一時三五分 唱劇調 一、短歌 江上에둥둥 二、唱劇調 成南淑 鼓手 丁元燮

◇同二時 野球試合實況(國語)ー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ー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重奏 와獨奏 一、五重奏 敵島行進曲……瀨戶口藤吉作曲 二、三重奏 드리비아라……베르듸作曲 三、獨唱(키타ー伴奏)小夜曲……토세리作曲 四、二重奏 圓舞曲 봄의微笑……디프레作曲 五、同 마니슈세레나ー데……비제ー作曲 六、五重奏行進曲『空中女王』……金大珍編曲 京城리ー드소사이에리ー 指揮 金大珍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普成中學 朱鍾宜

◇同八時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李月色 金花香

◇同八時二五分 獨唱 一、歌劇『카르멘』中 집시의노래…미제ー作曲 二、머데룻커디湖畔…루ー란스作曲 三、小夜歌……로스티作曲 四、悲歌……마스네作曲 五、歌劇『카르멘』中

◇同八時五〇分 ー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實況ー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으로부터中繼ー

◇同九時三〇分(東) 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 風俗講座『朝鮮文字는어떠케創作되엿는가』 西村眞太郎

◇同八時四五分 連續科學(東)小說

◇同八時二〇分(東) 音樂

◇同七時五〇分 (大) 日曜演藝

◇同七時二〇分 講演(臺北)

◇六時二五分 講演(京城)

◇同六時 (大) 連續劇

◇午後一時 (東) 管絃樂

◇正午 (東)토ー키ー

### 十一日 (月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오이나물』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講演『自然과親하십시다』 毛允淑

◇正午 (東) 時報 (東)앗코ー디온合奏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話『두꺼비가먹은돈』 玄德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濟情報 李晶燮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氣候와文化』 徽文中學 金道泰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常識『雜音에對하야』 韓德奉

◇同八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綠陰芳草 二、唱劇調 春香歌中新延마지 吳太石 杖鼓 韓成俊

◇同八時五〇分 一、노들강변 二、도라지打鈴 三、넓니리야 四、興打鈴 朴明月 大笒 金永根

◇同九時五分 連續納涼怪談『百中날밤』(一) 申鼎言

###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一) 宋今璇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三九)

◇午後六時(軍) 唱歌

◇正午(東) 앗코ー디온

◇同六時二五分(福) 講演

◇同七時二〇分(城)라디오常識

◇同八時 管絃樂(自哈爾濱)

◇同八時二〇分(東) 時評

◇同八時四〇分(東) 連續科學小說

### 十二日 (火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물이야기』 城大講師 崔義楹

◇正午 (東)時報 新作朝鮮歌謠(레코ー드)

◇午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大相撲實況初日(國語)ー京城南米倉町으로부터中繼ー

◇同六時三〇分 어린이科學『錄音이야기』 韓碧波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種蠹이야기』(三) 申覺均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音律 靈山會相中잔靈山 上弦 下弦 打鈴 가락도도리 잔도도리 念佛 軍樂 玄琴 李彦禧 洋琴 李承煥 伽倻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李忠善 杖鼓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實深風經 二、唱劇調 박타령 朴綠珠 杖鼓 丁元燮

◇同九時 連續納涼怪談『百中날밤』(二)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一八) 李宗洙

# 黑白軍作戶手法에 難爲兄難爲弟라

三玄子

黑一六七 卯의一六에 午의一五에잇는 目外素點을大斜走석킨것은 錯외가티 白一七〇에 辰의一七로 侵入하면 辰의一六으로 흡개바다 中央에 黑勢를安保코자한것인데 第一線으로 上面中央이構築되고 엇논만큼 살출판한價値가 업제 아니하나 右面이열려지고 또 그方面을 構築하라면 白도그 右面으로 構築되야 作戶의利자 相殺될것이니 左邊下隅를 白에게 讓渡한것만은 損이아니라 할수업다 그럼으로 黑一六七을 辰의一七에두엇스면 上面및 左面의黑勢關係로 白이 巳의一六으로 侵入할수업스니 左邊下隅가 確保되고또 中央의 作戶關係에잇서서도비록 全低壓된 嫌은업지아니하나 白과相持함에 不利할것이 업섯슬줄안다

白一七二 卯의一七은 巳의一七로 左進하는 方法도잇스나 그리두면 隅角에 죽음만한一撃을 져올는지모르 外勢는 黑의계巴圖되야 黑으로하야곰 中央作戶에 有利케하는 關係가잇는것을 考慮한 조金打點이여니와 黑一七三 巳의一七 白一七四 巳의一八、黑一七五 午의一七等의 必然한酬應을거처서 白一七六은 午의一八로 다시左進할것이업고 寅의一六으로자저 中央으로 發展하는것이 올흘고생각한다 前者는 第二線의 不過六、七戶의 內容이엇슬뿐이오 後者는 中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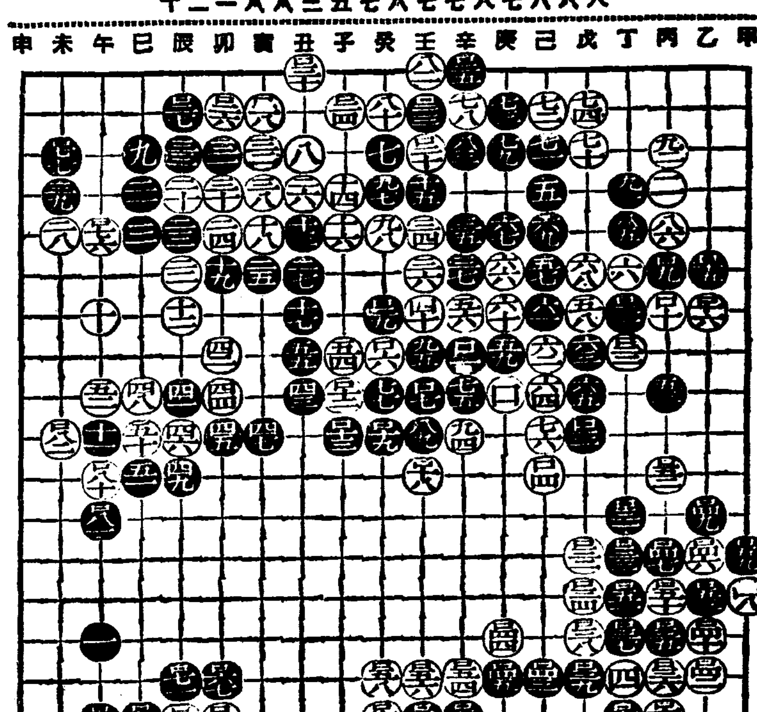
愛西勢의十數戶의價値가 엇게 아니하야 그런대 黑一七九가 도하未의一八로하다 國手叛旗의 禁戒를 犯하얏스니 누가 묘이되고누가弟가되여야 조흘는지 알수업다

도白一八〇 午의一一은 先手를 服用하는 하나의 조흔 關係이되게다 이제 中央大勢에 先手를 活用하면 一着十數戶의利得이 엇것는데 그와가티 午의一〇의 黑一點을 取함으로써 鐵豆(不過六、七戶)하야 先手를 獲得하는것은 딱한일이아니나 그리고 左邊中央을 黑에게 讓渡하는것이未安하거든 白一八〇을 未의一〇에두어、午의一一을 엿보는것이조흔면 黑은 午의一一로 黑一點을 補備하는것이오 그리하야 白未의一一 黑未의一二의 關聯을거처서 다시中央大勢에서 先手를 活用하면 兩全이되엇슬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치못하야 黑一八一 午의一二、白一八二 未의一〇의 關聯이進行되야 黑이 先手를가지게되엿스니 中央大勢의 作戶에서 黑이 重要한 點을 占領하게된것은 必要도업다

××本社獨占××

## 國手爭霸譜 (10)

白 權乘郁　黑 丁奎春　(四日午后出)



●一七一 卯의十八 ○一七二 卯의十七 ●一七三 巳의十七 ○一七四 巳의十八 ●一七五 午의十七 ○一七六 午의十八 ●一七七 辰의十六 ○一七八 辰의十七 ●一七九 未의十八 ○一八〇 午의十一 ●一八一 午의十二 ○一八二 未의十 ●一八三 午의十七 ○一八四 未의十八 ●一八五 午의十一 ○一八六 午의十二 ●一八七 未의十一 ○一八八 午의十二

……死點……　……劫粘……

○一九〇 ●一九一 寅의四 ○一九二 ●一九三 午의十 ○一九四 寅의二 ○一九六 壬의十四 ●一九八 丙의十四 ○一九九 壬의九 ○二〇〇 ●二〇三 丁의 七 ○二〇六 辛의 五 ○二〇五 乙의十三

昭和의常識 西曆은紀元으로改算할때는六六〇年을加한다

此際는特히浪費를업새고 齒磨도、强力效果의仁丹牛煉이他의半量으로되여서時局에도꼭適應합니다

效果도香味도第一

仁丹牛煉齒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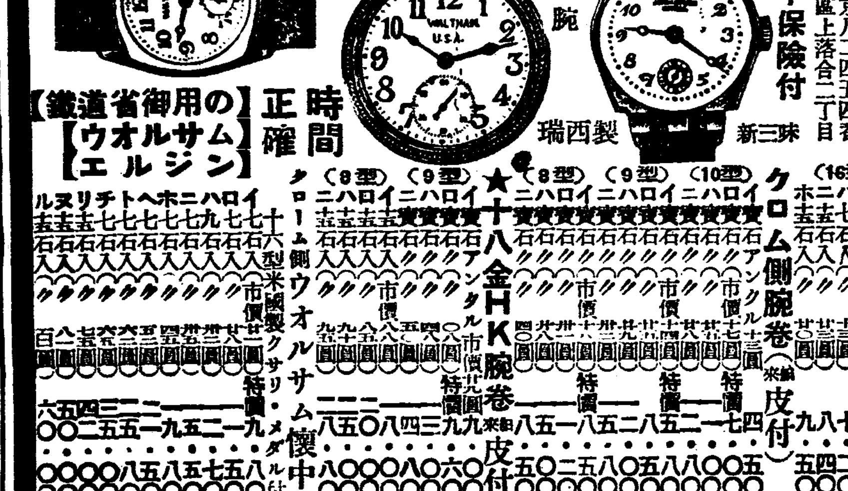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平壤府巡營里 南山醫院 醫師 金致丸 (入院室完備)

時는金이다 特別써ー비스 (1)五圓以上…샤ー프펜 (2)十圓以上…萬年筆 無代進呈합니다 싸기때문에잘팔리고 팔리기때문에더욱싸다 ◎첫째安心 그러고注文에實便이되며販賣하는여러분의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東京淀橋區上落合二丁目 十ケ年保險付

高級腕 瑞西製 新三昧



時間正確 【鐵道省御用の】【ウオルサム】【エルジン】

市價三分ノ一 ★註文時에는 某外國商館引受品整理

クロム側懷中(メタル付) クロム側腕卷(皮付) ★十八金H.K腕卷(皮付) クロー八側ウオルサム懷中

本社慶北支社 大邱府京町二丁目二十番地 電一、四四三番